

탄생

“어머니는 두 개의 심장을 품고 있지.”

2025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삶의 여정을 따라
생애주기 각 단계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생의 두 번째, '탄생'입니다.

생의 모든 순간에, 국립중앙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4

3

2025
March
vol. 330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민동용, 양진숙, 이은경, 한숙희
편집 박정연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24

표지 이야기



일러스트 손혜원

단란한 가족을 중심으로 피어나는 꽃과 나비를 배치하여,
새로운 세계의 시작과 탄생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주제를 열다

- 04 이달의 주제 읽기**
인류의 탄생과 나무를 심은 사람
- 08 데이터로 보는 인생 책**
탄생, 인류의 시작을 묻다
'탄생'과 '인류'를 키워드로 추출한 도서 소개
- 12 이야기 테라피**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
탄생과 성장의 의미를 묻다

도서관을 만나다

- 16 국립중앙도서관의 길**
《대한민국 국가서지》 환력(60년)을 맞이하다
- 20 사서큐레이션**
새로운 시작의 달, 3월의 추천 도서
- 24 오늘의 만남**
“주방에서 생존하셨습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요리사 김미령(이모카세1호),
조광호(만짚남), 박지영(키친캥스터)
- 28 꿈을 이루는 도서관**
게임보다 책이 재미있는, 우리는 도서관 탐험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 32 건축가를 만난 세계의 도서관**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Central Library)
& 렘 쿨하스(Rem Koolhaas), OM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
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서재를 걷다

- 36 문헌의 가치**
신규 보물로 지정된 불경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 40 책으로 만나는 명사**
당연한 죽음, 당연하지 않은 삶
이호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한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 44 작가를 사랑한 도시**
상처받은 영혼과 삶의 예술화
이효석 & 강원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 48 책 그리고 책**
서점 주인으로 한 달 살기 브이로그
《서점 일기: 세상 끝 서점을 비추는 365가지 그림자》

소식을 전하다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9 시가 있는 삶**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3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류의 탄생과 나무를 심은 사람

글 임몽택《악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저자

우주탐사선 보이저1호가 지구로부터 약 59억 6,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가장 오른쪽, 빛줄기의 중간 지점에 청백색 작은 점이 보인다. 훗날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린 이 점의 정체는 지구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동명의 저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소문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저 점 위에 살았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모두가, 저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다”라고 썼다. 그는 《코스모스》에서 “인간이 가진 자부심의 어리석음을 알려주는 데 우리의 조그만 천체를 멀리서 찍은 이 사진 이상 가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인류라는 존재는 코스모스라는 찬란한 아침 하늘에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코스모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무한한 우주 속 인류 탄생의 의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표면에 유일한 지적 생명체인 인류가 탄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우주가 신의 힘 혹은 자연법칙 또는 알려지지 않은 원리를 통해 작동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인류의 탄생은 우주의 거대한 계획을 실험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주는 ‘자신의 기원을 성찰하고, 문명을 구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또 다른 별과 행성들을 탐험하는 인간’의 지적 행위를 통해 우주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고자 인류를 탄생시켰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류의 존속이다. 지구는 이제까지 알려진 유일한 생명의 요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구 너머로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 나이가 지식에 대한 탐구도 계속해야 한다. 지구는 오랫동안 우연과 필연을 통해 지성을 가진 생명체를 출현시켰고, 이제 그 지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의 몫이 되었다. 따라서 인류는 무심한 우주 안에서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질문을 던지며, 예술과 과학, 그리고 사랑과 공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지적 생명체로서 지구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이건의 말처럼 인간은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소행성과 같은 우주 물체의 충돌 및 추락, 태양의 폭발에 따른 플레어(flare) 현상¹, 버려

¹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 수천만 개에 해당하는 격렬한 폭발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진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잔해물 같은 우주 쓰레기와와 충돌로 지구는 우주적 위협에 처해 있다. 나아가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오염, 환경파괴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의 독창성은 문명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핵무기, 인공지능, 생명공학의 위험 등 인류의 실존적 위험을 초래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과는 다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환경과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성찰하고, 혁신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류와 지구, 필수 불가결한 공존

인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사건과 복잡한 조건의 결과물이고 지구가 진정으로 우주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곳이라면, 인류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인류의 존속을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생존과 성공은 기술 및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다른 종(種)에 대한,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한 공감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구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류는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으로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하며, 지구의 자원이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씨앗으로 이어가는 인류의 존속

수백만 년 전에는 지구에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살지 않았다. 지금부터 수백만 년 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 생명의 역사는 생성과 소멸의 역사다. 학자들은 생명체 탄생 이후 지금까지 출현했던 종의 99% 이상이 멸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이건의 말처럼 자연에서는 “멸종이 원칙이고 생존은 예외다.” 인간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엘제아르 부피에’는 고산지대 황무지에 사는 양치기이다. 작가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



한다. “그는 땅에 쇠막대기를 박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도토리를 심고 다시 덮었다. 그는 딱딱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저 그곳이 공유지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10년 후 그곳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다. 나무들은 엘제아르 부피에의 키보다 더 높이 자랐고, 숲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가장 넓은 곳은 폭이 11킬로미터나 되었다. 그 장면을 본 화자는 감탄하며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술적인 도구도 지니지 못한 오직 한 사람의 손과 영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인간이란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느님처럼 유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다. 칸트의 범주적 정언명령이 아니더라도 지성적이고 자각적인 존재로서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자연과 생명의 안녕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하며, 인류의 지능은 모든 존재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인간과 지구의 생존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주 허공에 먼지처럼 떠 있는 지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경외심과 아울러 이토록 미미한 생명체를 사고하고, 공감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기나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구를 더 깊이 사랑하며, 인류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이 창백하고 푸른 점이 다음 세대에도 생명의 요람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한다. ❶

임동택

조직행동론을 전공하고 30여 년간 광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 경영학 에세이 《우울한 경영, 그리고 떠나는 근로자들》과 철학 에세이 《악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가 있다.

탄생, 인류의 시작을 묻다

‘탄생’과 ‘인류’를 키워드로 추출한 도서 소개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분석 대상 전국 공공도서관 중 1,541개관 | 장서 187,316,558권 | 회원 38,431,304명
 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대출량의 범위 도서 출간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누적된 대출량
 자료제공 각 출판사

탄생은 인간 존재의 시작점이자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사실 뒤에는 인류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들이 숨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탄생’과 ‘인류’를 키워드로 한 도서들을 대출 빈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순간을 다룬 작품들을 살펴보고, 탄생이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KEYWORD

생물학적 탄생과 가족 재구성의 의미를 탐구하는 도서



《엄마의 자존감 공부
: 천 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김미경 지음
21세기북스 | 2021

좋은 엄마란 무엇인지, 부모 노릇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경험을 담은 책이다. 정답 없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법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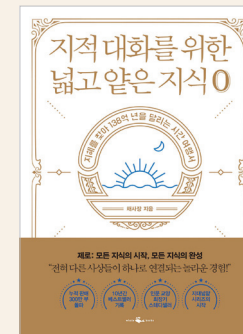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
김하나, 황선우 지음
이야기장수 | 2024

김하나, 황선우 두 작가는 결혼이나 혈연이 아닌 ‘조립식 가족(DIY FAMILY)’ 형태로 살아가며, 책에서 새로운 가족 모델을 제시했다. 2024년 개정증보판은 두 작가의 새로운 에세이와 미공개 사진을 담아 출간됐으며,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겪는 갈등과 성장, 깊어지는 유대를 통해 인류의 지속과 관계 맺기의 방식을 재정의했다.

2

KEYWORD

철학적 탄생과 인간 존재에 질문하는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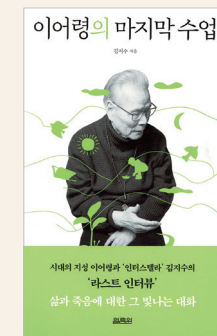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0
: 지혜를 찾아 138억 년을
달리는 시간 여행서》
채사장 지음
웨일북 | 2019

인류 지식의 기초를 탐구하고자 하는 책이다. 현대인은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기본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철학적 사유와 통찰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고 지적 대화를 위한 필수 개념을 정리했다.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우리 시대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문 지식)》
주현성 지음
더좋은책 | 2012

심리학, 회화, 신화, 역사, 철학, 글로벌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문학 입문서다.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커지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해 기초 개념을 쉽게 풀어낸 책이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어령, 김지수 지음
열림원 | 2021

이어령이 남긴 삶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통찰을 담은 인터뷰 기록이다. 죽음을 벗 삼아 사랑, 용서, 종교, 과학을 논하며, 탄생과 죽음이 인간 존재를 완성하는 과정임을 성찰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전하는 책이다.

3

KEYWORD

문학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관계



《우리는 사랑일까》

알랭 드 보통 지음

공경희 옮김 | 은행나무 | 2005

연애의 탄생에서 결실까지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사랑의 탄생과 성숙은 인류가 지속되는 근본 원리 중 하나이자 인간 존재를 탐색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이를 철학적 시선으로 조명한다. 연애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통찰하는 책이다.



《아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지음

실천문학사 | 2000

한국 현대소설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박완서 작가가 전쟁과 분단의 상처, 소시민의 일상, 여성문제, 그리고 죽음과의 대면까지 다양한 현실의 풍경을 담아냈다. 탄생과 성장, 죽음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연속성을 그리며, 인류가 겪어온 역사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빨간 머리 앤 + 에이번리의 앤 세트》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지혁 그림 |

김양미, 정지현 옮김 |

인디고(글담) | 2008

한 소녀가 새로운 가정 안에서 자신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을 다루며, 자아와 성장의 탄생을 그린다. 1908년 발표된 이래 세계 고전문학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성장담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회색 인간》

김동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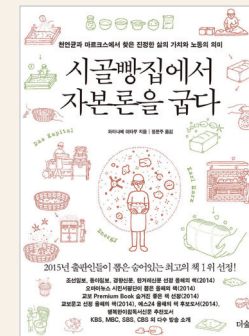
요다 | 2017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예술이 어떤 희망을 비추는지를 탐구하는 소설집이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극한 상황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시험받는지를 보여준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탄생하는 과정을 담아내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4

KEYWORD

노동과 경제적 삶의 탄생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천연균과 마르크스에서 찾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노동의 의미》

와타나베 이타루,

와타나베 마리코 지음

정문주 옮김 | 더숲 | 2014

부조리한 경제구조 속에서 진정한 삶과 노동의 의미를 찾고자 빵집 '다루마리'를 창업한 부부의 이야기다. 대량생산과 이윤 극대화 대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빵, 공정한 가격, 지속 가능한 노동을 실천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모색한다. 노동과 사회 속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방식에 대해 성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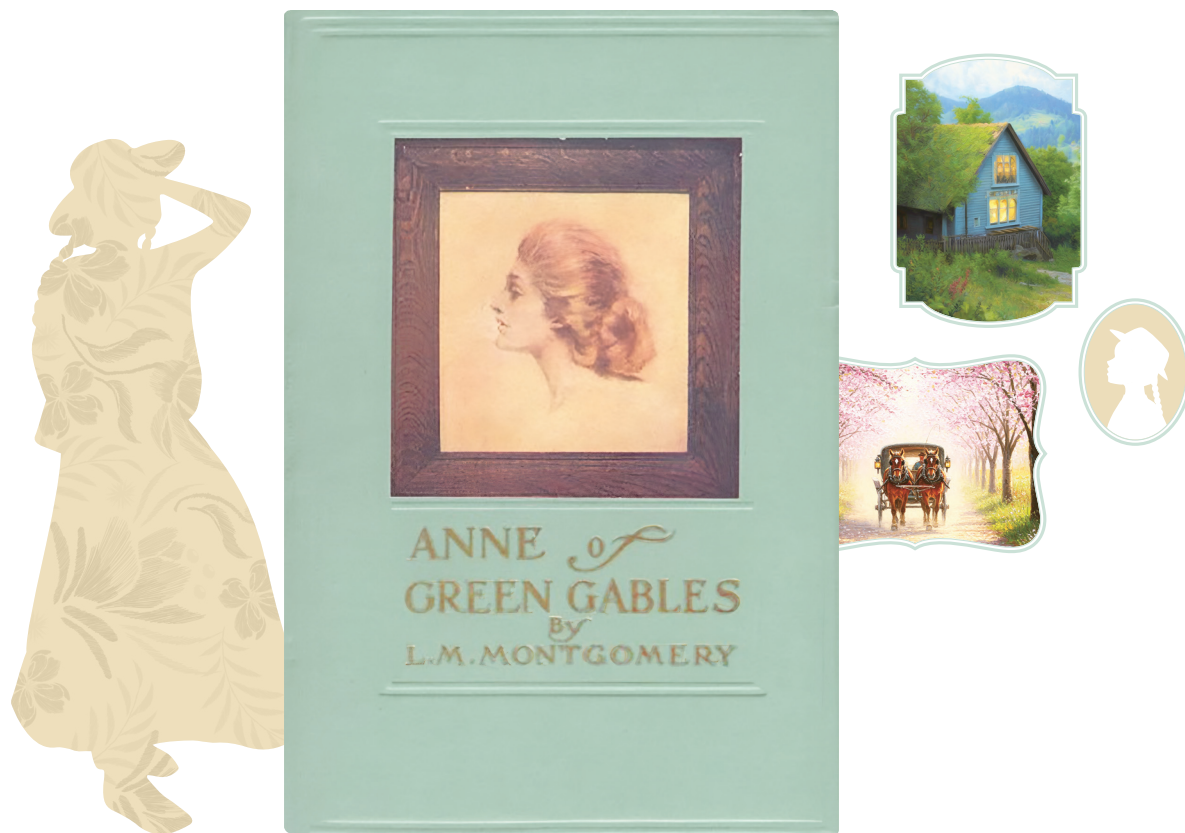
이 책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출생을 다루지 않는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태어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부모로서 혹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철학적 질문을 통해 인류의 시작과 개인의 존재 이유를 탐색하며 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랑과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한다. 또한 노동과 경제적 삶을 창조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모색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탄생은 단순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사회적, 철학적, 관계적, 경제적 맥락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책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변화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⑥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 탄생과 성장의 의미를 묻다

글 정여울(《문학이 필요한 시간》,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생애 초기의 건강한 성장을 좌우하는 힘은 무엇일까. 생애 초기의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함께 있어 주기'가 아닐까. 어린 소녀 앤이 술을 과일주스로 착각하여 다이애나에게 잔뜩 먹이는 실수를 했을 때도, 빨간 머리라는 이유만으로 '홍당무'라는 모욕을 당했을 때도, 길버트 브라이스의 놀림이 싫어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도 마릴라와 매슈는 다만 곁에 있어 준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더 나은 길을 고민하며. 우여곡절 끝에 고아 소녀 앤을 입양하게 된 마릴라와 매슈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앤을 안전하게 길들이지 못해 좌절하기도 하지만, 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진정한 '부모'가 된다. 그들은 점점 더 '함께 있기, 그 자체의 기쁨'을 배운다.



《Anne of Green Gables》(1908) ©Wikipedia

고아여도 괜찮아! 앤이 가진 순수과 진심

처음에는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거부하던 마릴라가 점점 더 앤 없이는 못 사는 '아름다운 딸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이 《빨간 머리 앤》의 감동을 더욱 크고 깊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 소설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앤이 고아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릴라와 매슈 남매를 만나기 전부터 '착하고 총명한 아이'로 잘 자랐다는 점이다. 즉 10세 이전에는 고아원이나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며 고난을 겪었음에도 생애 초기 성장에 꼭 필요한 '성격'과 '교양'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매슈가 원래 입양하려 했던 남자아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앤과 단지 한 시간 좀 넘게 대화를 하자마자 입양하고 싶어했던 이유 또한 '앤은 좋은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매슈는 고집스러운 마릴라로 하여금 고아 소녀 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재미있는 아이라고, 너의 '말뱃'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매슈는 극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 여자아이와 오랫동안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오갈 데 없는 앤을 차마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마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오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앤의 그칠 줄 모르는 수다에 담긴 순수와 진심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문학과 상상력이 길러낸 내면의 힘

그렇다면 앤이 이토록 사려 깊고, 지혜롭고, 어휘력과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앤의 생애 초기를 아름답게 수놓은 결정적인 힘. 그것은 바로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앤은 고아로 자랐지만 책을 사랑하는 소녀로 성장했던 것이다. 생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그 가난한 부부는 앤에게 책을 남겼다. 앤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자랐고, 고아원에 가서도 책 읽기만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수많은 책이 외로운 고아 소녀 앤의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다. 책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따스한 감수성이야말로 앤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고아로 보이지

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시와 소설로부터 배운 인간 세상의 파란만장한 '스토리텔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의 힘과 시적인 감수성으로 탄탄하게 무장한 소녀의 가슴속에서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실타래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평범한 시골 마을 에이번리에서 그야말로 안전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온 매슈와 마릴라 남매는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는 앤의 말솜씨에 놀란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기쁨의 하얀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앤. 그저 '베리네 연못'이라고 불리는 연못에는 '영롱한 물빛 호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앤. 하얗게 꽃잎을 흩날리는 벚꽃나무에 '눈의 여왕'이라 이름 붙이는 앤. 그런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앤을 바라보며 매슈와 마릴라는 감탄하면서도 당혹스러워한다. 자신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가로수길이나 호수였던 것이 앤에게는 한없이 낯설고 싱그러운 감탄의 대상이었다.

책을 사랑하는 소녀에게는 마침내 '상상력의 문'이 열린다. 책 속의 이야기를 열심히 따라 읽다 보니,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상상하는 힘도 커진 것이다. 바로 이 상상력이 외로운 소녀 앤을 구한다. 앤이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 그 소녀에게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독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앤은 넘쳐흐르는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다채로운 경험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고생도 많이 했지만 대신에 역경을 헤쳐 나가는 지혜 또한 갖추게 된다.

다이애나의 부모가 외출 중일 때, 다이애나의 어린 동생 미니메이가 성홍열을 앓게 되자 앤은 갓난아이들을 돌보던 때의 경험을 살려 고열에 시달리는 미니메이를 살려낸다. 뒤늦게 도착한 의사 선생님이 칭찬할 정도로, 어른보다 뛰어난 위기 돌파 능력을 지닌 앤은 마릴라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고아 소녀를 입양하는 것을 결사반대했던 레이철 린드 부인뿐 아니라, 앤이 단지 고아라는 것만으로도 뒤에서 입방아를 찧던 모든 사람이 앤을 향한 편견을 내려

놓고 '있는 그대로의 앤'을 사랑하게 된다. 앤은 비록 인생 초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문학작품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앤의 빈자리'를 깨닫고 앤을 그리워하게 된다. 앤이 길버트 브라이스의 놀림을 받고 상처를 받아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 동안, 마릴라는 '이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초록색 지붕 집에서 마음껏 휴식을 만끽한 뒤, 알아서 "다이에나가 너무 그립다"며 스스로 학교에 가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앤은 길버트가 장난 삼아 한 말('홍당무'라는 놀림)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지만,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빼버린다면 인생이 아주 심심해 진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앤이 너무 그리웠다고 입을 모은다. 앤의 연기력, 앤의 상상력, 앤의 다정함.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은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자 모두가 뿔 듯이 기뻐한다. 친구들은 놀이를 할 때는 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노래를 할 때는 앤의 낭랑한 목소리를, 책을 낭독할 때는 앤의 뛰어난 연기력을 그리워한 것이다. 앤의 빨간 머리와 주근깨, 고아라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자칫하면 '편견'을 심어줄 수 있었지만, 앤은 어디서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마침내 '사랑받는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유튜브와 틱톡의 온갖 동영상으로 가득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책'의 소중함과 책 읽기의 기쁨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존의 열쇠가 아닐까.

결점을 안고도 빛나는 모두의 성장 이야기

우리 모두 저마다 결점이나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빨간 머리 앤》을 매번 다시 읽게 만드는 힘은 결점과 콤플렉스를 안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앤의 눈부신 성장 스토리다. 주근깨, 빨간 머리, 뺨뺨 마른 몸, 고아라는 사실, 실수투성이 하루하루와 덩벙거리는 성격. 그 모두가 앤에게는 콤플렉스였지만, 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고 쓰는 능력, 남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으로 그런 결점을 극복해 나간다. 빨간 머리 앤은 매일매일 재미있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마릴라와 매튜, 다이애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의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처음에는 앤의 빨간 머리만 보고 '홍당무'라고 놀렸던 철없는 길버트 브라이스조차도 앤의 용감함과 지성, 풍부한 감수성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빨간 머리 앤》을 읽는 재미는 모든 인물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치유되고, 저마다의 단점을 극복해 나간다는 점이다. 오지랖이 지나치게 넓어 마릴라를 부담스럽게 했던 린드 부인조차도 나중에는 빨간 머리 앤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좋은 어른으로 변신한다. 그래서 《빨간 머리 앤》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용기를 얻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 60대가 넘어서도 인간은 이렇듯 매일 성장할 수 있구나.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합심해야 한다는 진리를 이야기 전체의 힘으로 증명하는 작품, 그것이 바로 《빨간 머리 앤》의 매력이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낯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양육하는 에이번리라는 마을 전체의 힘을 생각하게 된다. 타인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결점을 극복해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스토리. 결점이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결점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 안는 너른 마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말이다. ㉠

정여울

에세이스트이자 문학평론가로 《문학이 필요한 시간》, 《데미안 프로젝트》, 《감수성 수업》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문학, 심리학, 예술을 다뤘다. KBS 1라디오 <이은선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오디오클럽 <월간 정여울: 당신의 감성을 깨우는 글쓰기 프로젝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살롱 드 뮤즈>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도서관을 만나다

16

국립중앙도서관의 길

《대한민국 국가서지》 환력(60년)을 맞이하다

20

사서큐레이션

새로운 시작의 달, 3월의 추천 도서

24

오늘의 만남

"주방에서 생존하셨습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요리사 김미령(이모카세1호), 조광호(만젓남), 박지영(키친캥스터)

28

꿈을 이루는 도서관

게임보다 책이 재미있는, 우리는 도서관 탐험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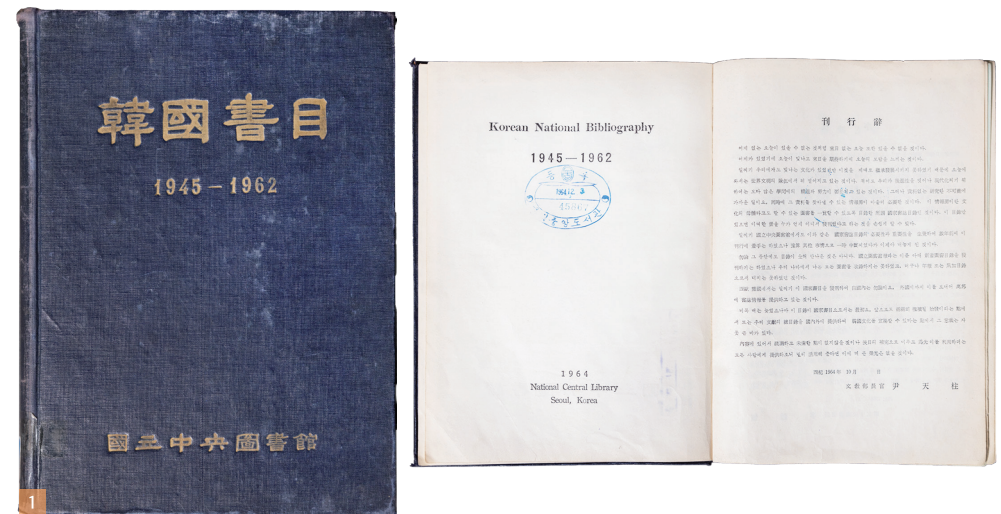
건축가를 만난 세계의 도서관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Central Library)
& 렘 쿨하스(Rem Koolhaas), OMA

《대한민국 국가서지》 환력(60년)을 맞이하다

글 조혜린(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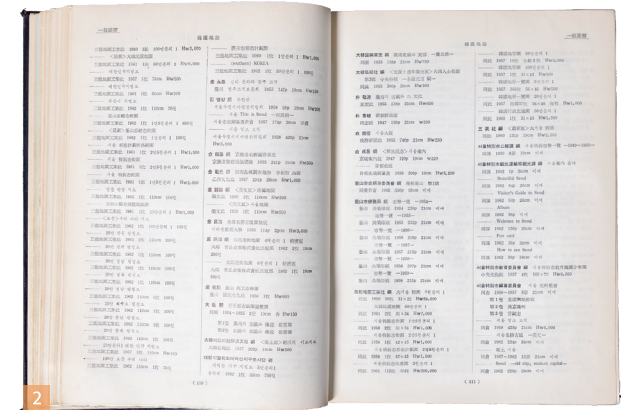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중 하나로 국가서지(書誌)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 작성은 주로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이다. 자료 선정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출판문화의 지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지식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1964

국가서지의 태동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국가서지를 발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그 근간에는 1963년 10월에 제정된 ‘도서관법’이 있다. ‘도서관법’ 제12조에는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였으며, 납본된 출판물에 대한 목록은 제17조 제2항 “국내외서지의 작성 및 그 소개” 규정에 따라 국가서지 작성의 책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부여되었다. 법이 시행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 작성에 착수하였고, 현재 출판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한 목록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간행된 출판물에 대한 목록도 역시 필요하므로 우선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법 제정 전년도인 1962년까지 발간된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소급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법 제정 이듬해인 1964년 10월에 발간된 것이 바로 《한국서목(韓國書目)》이었다. 이에 소급 서지를 포함하면 1945년부터 현재까지 80년의 역사라고 보는 이도 있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2013년)에는 국가서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간행된 모든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록하기 위해 작성된 서지. 일국서지, 국내출판물총목록, 전국출판물총목록이라고도 한다. 한 출판물마다 서지사항을 기재하고 일정한 체계로 배열한 것이므로 그 국가의 납본도서관인 국가도서관이 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국가서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소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짧게 정의하면 ‘자국 내에서 발간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서지는 언제부터 발간되었을까. 초창기 명칭은 지금과는 다르나,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국가서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그 명칭은 《한국서목(韓國書目)》이었다. 이후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대한민국 국가서지》라는 명칭 변경과 함께, 전년도에 발행된 국내 자료에 대해 매년 국가서지를 발간하여, 사람의 나이로 치면 환력(還曆)을 맞이하게 되었다.

- *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태어난 지 60돌이 되는 해, 또는 그 나이
- 1. 최초의 국가서지 《한국서목(韓國書目)》 표지 및 표제지
- 2. 내용 일부



1965-2002



납본제도를 토대로 한 국가서지

이어서 1965년 6월에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이라는 명칭하에 본격적인 국가서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1963년과 1964년에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에 대한 서지가 수록되었다. 한편, 1965년부터 시행된 납본제도와 함께 《출판물 납본월보》가 월간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 《출판물 납본월보》에는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정기간행물로 구분하여 납본자료에 대한 서지가 수록되었다. 정부간행물은 기관별, 기타는 유별로 수록하였고, 납본자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도서는 박봉석 편 『한국십진분류표』에 따른 주제별 배열을 한 후에 같은 주제 안에서는 저자명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자명과 서명 색인을 추가하였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내용은 이 납본월보에 게재된 순서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어 납본월보의 연간 축적판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출판물 납본월보》는 이후 1970년 《국립도서관 관보》에 부록으로 수록되었다가 1972년에는 《문헌정보》에 합병되었고, 현재는 《납본주보》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매주 게시되고 있다.

당시의 책자형 국가서지는 방대한 양의 출판물로 인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었고, 작업 완료 시점의 차이로 인해 매년 발행 시기가 상이했다. 또한 상당히 두꺼운 1권짜리 책자로 발간되었는데, 결국 1987년(1988년에 발간)부터는 상하 2권으로 분책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형 서지는 2002년(2003년에 발간)을 마지막으로 발간을 중단함으로써 인쇄 형태의 국가서지는 약 40년간의 역사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3.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첫 간행물과 연도별 간행물
4. 분책 간행물

2003-2012



오프라인 전자매체 시대

2004년,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록정보 매체의 발달을 수용하여 전자매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2005년 2월에 발간된 2003년 판 국가서지는 CD-ROM에 수록된 것이었다. 이는 좀 더 발전된 전자매체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였다. 곧이어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수록할 수 있는 DVD 시대로 이행함으로써 2004년(2005년 발간)에는 《대한민국 국가서지》로 개칭하는 동시에 수록 매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도 포함하여 DVD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DVD 판 국가서지는 2012년(2013년 발행)까지 10년간 발간되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국가서지인 《일본전국서지》의 CD-ROM 판 출시가 1988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셈이다.



5. CD-ROM에 수록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6. DVD에 수록된 《대한민국 국가서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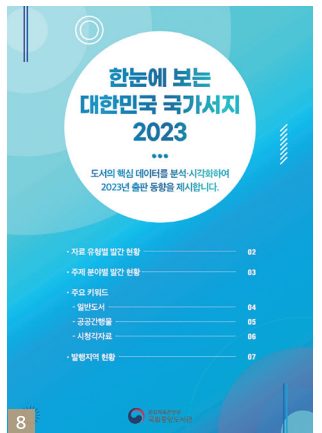
2013-현재



온라인 시대

2013년에는 오프라인 전자매체 발간을 중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만 게재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중 2013년~2019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판유통진흥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국가서지로 발간하여 e-pub과 PDF 형식의 전자책으로 게시함으로써 두 가지 형식의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부터는 XLSX(EXCEL), CSV, JSON 형식의 세 가지 데이터세트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세트 파일은 ①일반도서 ②공공간행물 ③시청각자료, 컴퓨터프로그램 및 파일 ④장애인대체자료 ⑤연속간행물 ⑥학위논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의 여섯 종류로 나누어 게재되어 있으며 도서관 소개 ⇒ 발간자료 ⇒ 대한민국 국가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파일에서 서지정보 검색과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국가서지》로 서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한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7. 전자책 형태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8.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2023》
(출처: librarian.nl.go.kr)



8

현재 《대한민국 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종합목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목록을 종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수록 대상 또한 인쇄 자료에서 마이크로 형태 자료와 전자자료, 더 나아가 온라인 자료, 그리고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발행 형태도 인쇄 매체에서 전자 매체를 거쳐,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60년 역사를 거치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는 여전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국가서지는 수록 데이터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 차원에서 국가서지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 국가서지 데이터의 실제적인 활용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서지분과회는 'National Bibliographic Register'에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52개국의 국가서지 작성 기관을 등재하여 다른 나라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디지털 시대의 국가서지를 위한 보고서(Common Practic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in the Digital Age)》 발간(2022)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2020) 발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외국의 국가도서관들과 국제기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을 더욱 깊이 모색해야 할 때이다. ㉠

새로운 시작의 달, 3월의 추천 도서

글·사진 국립중앙도서관

LIBRARIAN CURATION

국내문학

오렌지와 빵칼

청예 지음 | 허블 | 2024



“다시 해방을 원한다면 추가 시술을 받으세요. 대신 그때부터는 유료예요. 그들도 장사는 해야죠? 무료로 받고 싶다면 당신처럼 통제력이 강한 피실험자 한 명을 연구소에 데려가세요. 차에 태워서든, 머리채를 잡아서든.”(165쪽)

국내 SF 소설계의 새로운 강자, 청예 작가가 신작 《오렌지와 빵칼》을 선보였다.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며 탄탄한 필력을 인정받은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오렌지와 빵칼》은 웃음을 잃은 유치원 교사 오영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정서 조절 기술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자유와 통제, 억압과 해방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리얼리즘과 미스터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서사는 마지막 반전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감정이 조밀하게 엮인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자유와 통제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며, 한국 미스터리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본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지쳤다면, 이 책과 함께 소설만이 줄 수 있는 통렬한 해방감을 맛보면 어떨까?

📖 저자 소개

청예 2021년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단편 우수상, 2021년 제1회 K-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2021년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최우수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2022년 제6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사탕비**》
청예 | 2023
《**폭우 속의 우주**》
청예 | 2023
《**수호신**》
청예 | 2024

국외문학

나에게 진실이라는 거짓을 맹세해

헬레네 플루드 지음 | 권도희 옮김 | 푸른숲 | 2024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 불편함을 느끼게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일관된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중략) 사실을 조금만 고쳐 쓰면 그 즉시 모순된 조건들 또한 진실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270쪽)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사실이 과연 진실일까?

《나에게 진실이라는 거짓을 맹세해》는 이러한 의문을 파고드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주인공 리케와 그녀의 불륜 상대였던 아파트 이웃 요르겐의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리케는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사실은 상대가 보여주기로 선택한 단편적인 조각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작가는 진실과 거짓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 받아들이는 ‘진실’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심리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놓치지 말자. 단순한 추리소설을 넘어 인간관계의 허상과 진실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헬레네 플루드(Helene Flood) 폭력성, 트라우마와 관련된 수치심과 죄책감 분야를 연구하여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에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그려낸 데뷔 소설 《테라피스트》를 출간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테라피스트**》
헬레네 플루드 | 2020
《**말로 머더 클럽**》
로버트 소로굿 | 2024
《**지식인의 두 얼굴**》
폴 존슨 | 2020

인문예술

생각의 기술

: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

코디정 지음 | 이소노미야 | 2024



“모든 개념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저마다 선명함이 다르다. (중략)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단어를 꺼낼 때, 적어도 그 의미가 선명한 단어를 고르는 것이 좋다. 즉 쉽고 명확한 단어가 좋다.”(105, 109쪽)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생각의 기술》은 논리학을 ‘인간 공통의 사고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새롭게 정의하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법을 제시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해 인간의 사고 과정을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논리적 사고 활용법을 다룬다. 복잡한 논리학 개념을 다양한 예시와 그림으로 쉽게 풀어내며, 각 장을 요약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논리학을 딱딱한 이론이 아닌 ‘생각의 기술’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개개인의 사고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통찰은, 실제 삶에서 논리적 사고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한 지침이 된다.

📖 저자 소개

코디정 에디터, 언어활동가, 번역가.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이자 <코디정의 지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상했으며, 《쾌심한 철학번역》 등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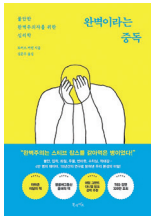
《**논리의 힘 지식의 격: 교양인을 위한 56가지 시사이슈 찬반토론**》
허원순 | 2024
《**수학자가 들려주는 진짜 논리 이야기**》
송용진 | 2023
《**논리는 나의 힘: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논리 학습의 결정판**》
최훈 | 2024

인문예술

완벽이라는 중독

: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토머스 커런 지음 | 김문주 옮김 | 북라이프 | 2024



“내 결정을 더 자주 온전히 책임지자. 나를 믿어보자. 다른 사람이 되려고, 다른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불편한 일은 없다. 생각하고 느끼고 무엇이 내 것인지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302쪽)

매사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운 적이 있는가? 현대인의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근원에는 언제나 집착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당신을 가둔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책에서 그 길을 찾아보자.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완벽주의라는 유행병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지나친 경쟁심리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한다. 완벽함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주리라는 만연한 오해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때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을 설득력 있는 어조로 제시해 오는 것이다. 독자들은 결국 완벽주의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며, 사회를 둘러싼 이 거대한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또한 인지하게 된다.

📖 저자 소개

토머스 커런(Thomas Curran)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완벽주의와 정신건강 분야를 주제로 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여러 매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학적 통찰을 전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인생의 의미: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 2024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무던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HSP를 위한 심리학**》
최재훈 | 2024
《**우리는 왜 성공할수록 불안해할까: 남에겐 관대하고 나에게만 가혹한 여성들의 가면 증후군 탐구**》
밸러리 영 | 2024

사회과학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대하여

이효원 지음 | 현대지성 | 2024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실존의 시작이듯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자 나의 실존에 대한 고민입니다.”(21쪽)

‘헌법’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법조계는 물론 정치, 언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사태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헌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야》는 세상이 어지럽게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려준다. 13년간의 법조계 실무 경험을 가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헌법 해설서로, 130개 조항의 헌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냈다. 각 조문에 대한 작가의 사유도 함께 읽을 수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준다. 지능화, 고령화 시대를 지나며 ‘핵개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성장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저자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적 가치의 조화를 설명하며, 현대 사회에서 헌법이 지니는 실질적 의미를 짚어낸다.

사회과학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 최초의 질문에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

이정동 지음 | 김영사 | 2024



“인류의 새벽이 밝아온 이래 인간은 기술과 한 몸처럼 발전해왔고, 생물학적 인간의 모습은 변함없었지만 기술 덕분에 기술과 인간이 합쳐진 복합체는 더 큰 존재로 발전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문명이다.”(24쪽)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낡은 기술은 어떻게 새로운 혁신 기술로 진화할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는 기술의 본질과 중요성부터 시작해 기술이 확산되고 교체되어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풀어낸다. 조합진화, 굴절적응, 스몰 베틱과 적응적 탐색, 경험의 축적과 전수, 선적응과 분화라는 여섯 가지 진화의 법칙을 제시하고, 이 법칙들이 잘 작동할 때 신기술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 진화의 논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기술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기술이 가진 역동성과 생명력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이효원 13년간 검사로 근무했으며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독일 베를린자유 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를 하면서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 헌법강의》, 《통일법의 이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202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파커 J. 파머 | 2012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 2009

저자 소개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축적의 길》, 《최초의 질문: 기술 선진국의 조건》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학이 일상으로 오기까지**》
마이클 맥레이, 조너선 베를리너 | 2022
《**중의 기원**》
찰스 로버트 다윈 | 2019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 포스트 AI시대, 문화물리학자의 창의성 특강**》
박주용 | 2024

자연과학

위대한 관찰

: 곤충학자이길 거부했던 자연주의자 장 앙리 파브르의 말과 삶

조르주 빅토르 르그로 지음 | 김숨 옮김 | H(휴머니스트출판그룹) | 2024



“생명체에서 고립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각 부분은 관찰자의 시선에 무수히 많은 측면으로 비치기에 철학자가 되지 않고는 진정한 박물학자가 될 수 없다.”(157쪽)

자연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과 관찰로 일생을 바친 한 학자가 있다. 찰스 다윈이 “아무나 흉내 내지 못할 관찰자”라고 묘사한 바 있는, 장 앙리 파브르이다. 조르주 빅토르 르그로가 쓴 전기 《위대한 관찰》은 《파브르 곤충기》로 널리 알려진 파브르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곤충학자가 아닌 모든 생물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한 박물학자였다. 가난이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흔에 가까운 나이가 지 한결같은 열정으로 관찰을 이어갔다. 그의 끊임없는 탐구는 인간의 존엄성, 전문가의 정직성, 관찰자의 천재성, 저술가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파브르는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으며, 참음성 있는 관찰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성이라고 생각했다. 파브르의 삶과 기록은 일상 속 작은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떤 경이와 감동을 가져다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조르주 빅토르 르그로(Georges Victor Legros)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의사로, 1907년 여름 아내와 함께 파브르의 거처 ‘아르마스’를 방문해 그의 제자가 됐으며, 파브르를 위한 기념회를 여는 등 매년 두 차례 이상 아르마스를 방문해 파브르의 말년을 함께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래는 물에서 숨 쉬지 않는다: 불완전한 진화 아래 숨겨진 놀라운 자연의 질서**》
앤디 돕슨 | 2024
《**식물에 관한 오해**》
이소영 | 2024
《**파브르 식물기**》
장 앙리 파브르 | 2023

자연과학

가위는 왜 가위처럼 생겼을까

다나카 미유키, 유키 치요코 지음 | 이효진 옮김 | 오아시스 | 2024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도구와 물리 이론에 관해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치에 맞는 물건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10쪽)

순가락은 왜 둥글고 오목할까? 주사는 왜 따끔하고 아플까? 피자는 왜 둥근 칼로 자르는 걸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책 《가위는 왜 가위처럼 생겼을까》는 일상 속 생활 도구들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다. 이 책은 순가락, 주사기, 피자 커터 등 25가지 도구들을 ‘흘려보내는 도구’, ‘꽃은 도구’, ‘분리하는 도구’, ‘유지하는 도구’, ‘움기는 도구’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리학을 전공한 두 저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구들 속에 숨어 있는 중력, 탄성, 마찰, 분자, 작용 반작용과 같은 물리법칙들을 친근한 설명과 일러스트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과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일상의 작은 물건들을 통해 물리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으로 생활 속 물리학의 흥미로운 세계를 만나보길 추천한다. **㉠**

저자 소개

다나카 미유키(田中幸), **유키 치요코**(結城千代子)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동기인 두 저자는 현재 각각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며, 과학 교과서 집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달 《신기한 신문》을 발행하고, 《물리학자가 들려주는 물리학 이야기》 등 여러 물리학 도서를 공동 집필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익스트림 물리학: 수식 없이 읽는 여섯 가지 극한의 물리**》
연보현 | 2022
《**세상을 바꾼 물리학: 물리의 역사와 과학 개념을 바꿨다**》
원정현 | 2021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벌여봅시다: 12명의 천재 물리학자가 들려주는 물리학 이야기**》
후위에하이 | 2024

“주방에서 생존하셨습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요리사 김미령(이모카세1호), 조광호(만찐남), 박지영(키친갱스터)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칼과 불이 부딪치는 전쟁터이자 창의적인 감각과 기술이 요구되는 종합예술의 장. 그 치열한 공간 속에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요리사 김미령(이모카세1호), 조광호(만찐남), 박지영(키친갱스터)은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왔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었다.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는 이들을 만나 주방에서 쌓아온 시간과 방송 이후 달라진 삶,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물었다.

키친갱스터
박지영

이모카세1호
김미령

만찐남
조광호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미령(이모카세1호)** 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에서 이모카세1호로 출연한 김미령입니다. 서울 경동시장에서 한식 요리집 ‘안동집 손칼국시’와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즐거운술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 **조광호(만찐남)** 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 만찐남 조광호입니다.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아 요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요리사가 되었네요. 현재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조광101, 조광20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식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영(키친갱스터)** 안녕하세요, 〈흑백요리사〉에 키친갱스터로 출연했던 박지영입니다. 조금 일찍 떨어졌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은 서울 용산구 남영역 부근에서 ‘나우 남영’이라는 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방영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령(이모카세1호)** 방송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줄도 이전보다 더 길게 서시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덕분에 전통시장이 많이 활기를 찾아서 굉장히 보람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 **조광호(만찐남)** 가게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한 번씩 홀에 나가 인사를 드리죠. 그 외 시간에는 가게 한쪽에 준비된 저만의 공간에서 계속 요리 연구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박지영(키친갱스터)** 두 분하고 다르게 출연 당시만 해도 매장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힘든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방송 이후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 많아지니까 일단 버려지는 재료가 없어서 행복합니다. 아주 신선한 재료들로 손님들께 메뉴를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흑백요리사〉에서 다양한 요리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연 계기와 프로그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령(이모카세1호)**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작가님들이 경동시장으로 찾아오셨죠. 처음에는 고사했어요. 그런데 메인 작가님이 전통시장이라는 키워드로 제 마음을 공략하시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보는 플랫폼이니까 경동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 말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촬영 내내 시설이 워낙 좋아서 잘 차려진 무대에서 마음껏 요리하는 시간이었어요.

👤 **조광호(만찐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평소에도 그런 경연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포스터 ©넷플릭스

이 있으면 도전해 보는 성격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차가 없어서 재료를 여행 가방에 싸서 갔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장에 가니 재료들도 좋고 조리 도구도 최신식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손에 익은 칼만 제 것으로 사용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 **박지영(키친갱스터)** 저도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요. 좀 일찍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제 도구와 식재료를 모두 챙겨 갔어요. 조금이나마 손에 익은 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매 회차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그날의 미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하기 전과 후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흑백요리사〉가 셰프님들의 요리에 대한 철학이나 삶을 대하는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령(이모카세1호)** 가장 좋았던 건 좋은 환경에서 대단한 분들의 ‘움직임’을 배웠다는 점이에요. 다들 주방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감탄스럽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요리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도구나 요리 기술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광호(만찐남) 저도 이번에 다른 요리사들이 어떻게 요리하는지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인 다이닝에서는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모카세1호님은 손이 정말 빠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요리사들은 다른 사람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어떻게 주방을 쓰시지를 배워서 가게에서 적용시켜 보곤 했어요. 다들 스스로의 요리에 갖는 열정이나 자부심도 엄청났거든요. 저도 요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지영(키친갱스터) 저도 비슷했어요. 99명의 요리사를 한자리에 써 보는 건데 현장에서 보며 소름 끼친 적도 있었습니다. 요리를 전공해서 저에게 요리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는데요. 출연을 계기로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도 상가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라는 특성상 볼특정 다수를 대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만의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요?

김미령(이모카세1호) 요식업에 요령은 없어요. 힘들음 극복하는 쉬운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세월이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 번 욕도 먹고 싸워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체득하게 된 달까요.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님들이 정말 반가운 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리가 즐거운 거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장사를 10여 년 정도만 하다가 그만뒀다면 이 행복을 못 느끼고 불평만 했을 거 같아요. 그 오랜 시간을 밟고 지나오니까 매사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쯤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피곤해요. 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손가락이 부어서 안 구부러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정말 다 감사합니다.

조광호(만찐남)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루의 일정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련의 기계적인 과정들이 재밌습니다. 일어나서 가게에 가면 제일 먼저 고기 삶는 불을 올려두고 운동을 다녀오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합니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밀 준비를 저 혼자서 다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두고 같이 요리하는 직원들이 출근하면 각자의 일들을 분담해서 합니다.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두니 돌발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뉴얼까지 갖춰져 있어서 큰 위기도 헤쳐가며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영(키친갱스터) 저희 가게에도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로 정말 볼특정 다수가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초기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요식업에 회의가 들 정도로 몇 번을 울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위로도 요리와 사람한테 받더라고요. 힘든 순간 손님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치유를 받곤 해요. 재방문 고객도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프로그램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요리란 단순히

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은 요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미령(이모카세1호) 지금도 출근하자마자 바로 국수 한 그릇을 먹어요. 맛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10년 만에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맛이 그대로예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다가 그 그리움을 딱 채웠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적어도 제 요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광호(만찐남)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으로 손님들도 어느 곳에 갈지를 고르시잖아요. 요리의 맛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분위기나 느끼고 싶은 기분, 서비스, 가격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요소가 어우러지고 쌓여야 비로소 맛있고 흡족한 요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영(키친갱스터)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팀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음식 본연의 식재료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요.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듯, 주방에서도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주재료와 부재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의 완성된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과정들에서 요리의 매력을 느낍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주말에도 바쁠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책은 많이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미령(이모카세1호) 저에게 책 읽기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유도 책을 읽기 위해서거든요. 그 시간만 저한테 오롯이 주어진 시간이니깐요. 요즘에도 쉬는 날이면 서점에 가곤 해요. 항상 주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서점에 가면 트렌트를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책을 여러 권 사서 다 읽고 책장에 꽂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조광호(만찐남) 많은 분들이 만화책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책도 많이 보고 요리책도 병행해서 보고 있어요. 책이 경험을 사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 사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어떤 분야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면 책부터 사는 습관이 있어요. 분명 책으로도 프로에 가까운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박지영(키친갱스터) 저도 출퇴근 때 책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퇴근하고 나면 솔직히 녹초가 돼서 책을 읽는 게 어렵거든요. 주로 마음이 지칠 때 책을 찾는 거 같아요. 책에 빠져들면 어떤 일이든 용서가 될 때도 있고 그걸로 희석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을 다독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및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령(이모카세1호) 초대해 주셔서 덕분에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꼭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책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즐거운술상 같은 경우 냉동실이 없어요. 그만큼 당일에 준비한 재료를 찾아온 분들에게 모두 대접합니다. 언제든 잡수러 오세요. 제 한식 레시피는 조만간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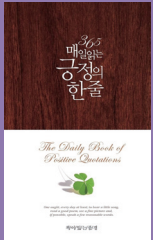
조광호(만찐남) 저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현재 책을 집필 중이고, 새로운 웹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요리 연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음식도 책도 직접 경험해 봐야 진짜 매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께서 다양한 책을 읽듯이, 가볍게 동네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문화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영(키친갱스터) 인터뷰를 앞두고 제 책장을 오랫동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하나하나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요리를 하며 제자리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조금만 시선을 돌려 다른 가게들도 함께 찾아 주신다면 요식업계 전체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미령(이모카세1호)의 추천 도서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린다 피콘 지음 | 책이있는풍경 | 2012



조광호(만찐남)의 추천 도서

<반찬등속, 할머니 말씀대로

김치 하는 이야기>

강신혜 지음 | 청주부엌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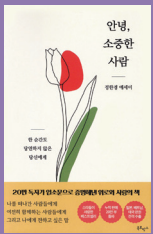


박지영(키친갱스터)의 추천 도서

<안녕, 소중한 사람>

한 순간도 당연하지 않은 당신에게>

정한경 지음 | 북로망스 | 2020



<흑백요리사> 3인의
추천 도서 영상 보러 가기

김미령(이모카세1호)

경동시장 안동집 손칼국시 오너 셰프(40년 이상, 2대째 운영 중)

창동 즐거운술상 오너 셰프(2015~현재)

조광호(만찐남)

조광101 오너 셰프(2022~현재)

조광201 오너 셰프(2020~현재)

박지영(키친갱스터)

나우 남영 오너 셰프(2023~현재)

게임보다 책이 재미있는, 우리는 도서관 탐험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취재 김미혜 사진 안호성

Library Information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
- ☎ 031-644-4381

(왼쪽부터)
책걸음마,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도전! 내일은 독서왕



새싹자료실



스마트폰의 보급, 유튜브 숏츠(YouTube Shorts)와 인스타그램 릴스(Instagram Reels)의 유행과 확산. 이 같은 디지털화는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함을 안겨주는 동시에 기초 문해력 저하, 어휘력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이러한 문제는 저연령층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게임보다 책이 재미있고, 피시방보다 도서관이 더 좋은 어린이들이 있다. 핸드폰 화면이 아닌 지도를 들여다 보고, 키보드와 마우스 대신 연필과 노트를 손에 쥔 이들은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 탐험대다.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경기도 이천시에 자리한 5개 도서관 중 세 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2009년 개관했다. 이천시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자 시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장서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편식 없는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애 맞춘 대규모 독서 프로젝트를 매년 촘촘히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책 꾸러미 추천 도서 서비스 '책걸음마'와 유아를 위한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초등학생을 위한 '도전! 내일은 독서왕'이 그 예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16년 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해 온 곳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이전에는 책을 빌리고, 자료를 열람하며,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능동적인 학습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역시 놀이와 학습이 공존하는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독서 문화의 장,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가운 사서의 말이다.

평생학습기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이용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온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그렇게 도서관이라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차별성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 능력으로 요구되는 문해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독서요소를 반영한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를 기획했다.

도서관, 어린이의 세상이 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주관한 ‘제18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상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는 기획력과 높은 활용성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전파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는 십진분류 10개 주제를 독서 다이어리로 탐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제별로 정해진 권수에 맞춰 원하는 도서를 선택해 읽은 뒤, 감상문을 다이어리에 작성한다. 이후 청구기호에 따라 책을 찾고, 미션 퀴즈를 풀어 문장을 완성하면, 탐험 지도 스티커가 주어진다. 어린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책을 읽고 독후 활동

을 수행하며 사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탐험 지도를 모두 완성한 대원들에게는 사파리 모자, 배지, 탐험단 전용 포토 회원 카드가 제공된다. 문 사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오랜만에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을 맡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이 즐겁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다이어리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죠.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독서 다이어리를 꾸미고, 미션을 수행하며,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적인 부분을 더해 문학에 치중된 독서의 영역을 보다 넓히고, 다양한 형식의 감상문을 써보며 문해력을 향상하는 목표도 담았습니다.”

다이어리 속지 제작부터 기념품, 오리엔테이션, 미션 제작까지 사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렇게 완성된 체험형 독서 챌린지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는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총 네 기수로 운영됐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 인원은 한 기수당 20명으로 정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모집 당시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는 뜨거웠다.



2024년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 탐험단 해단식

사서와 어린이가 구축한 유대 관계의 힘

지난 한 해, 도서관의 풍경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자료실에 들어서서는 어린이 상당수가 한 손에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 다이어리를 들고 있었고, 암호지와 연필을 들고 책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그런가 하면 대출 데스크 앞은 사서 선생님과 의면담을 원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주말이면 복새통을 이뤘다. 주로 무인반납기를 이용하고 대화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던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고 사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정적인 도서관이 그렇게 동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서관 전반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어린이들의 소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3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3개월간 30권의 책을, 스스로 골라 읽고 쓰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청구기호를 따라 척척 책을 찾고, 읽고 쓰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며 도서관을 즐거운 곳, 책 고르기를 신나는 일로 여기는 모습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탐험이 끝나도 사서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도서관에 온 아이들은 종일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어린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시킨 도서관. 이제 당당히 서가 사이를 누비고 책을 고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도서관 탐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 프로그램은 첫해 사업 방식에 독서 동아리 활동을 추가해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가이드 사서와 10개 주제별 책을 1권씩 읽고, 토론에 참여한 뒤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한 방식으로 독후감상문을 작성한다. 마지막 차수에는 함께 읽은 책의 작가를 초청하고 아이들이 직접 인터뷰어가 되어 진행하는 북 토크와 해당 도서로 꾸린 북 큐레이션도 운영할 예정이다.



Librarian Note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 담당

문가윤 사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이라는 매개체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만나고, 경험하며, 협력해 성장하는 놀이터이자 배움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도서관과 책에 대한 즐거운 기억이 많을수록 독서는 습관이 되고 도서관은 평생의 친구가 되죠.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에 참여한 우리 탐험단 친구들이 도서관을 여행하며 길을 찾았던 기억을 간직하고, 그 추억을 평생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 사서는 도서관과 참여자의 유대 관계의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이용하던 공공도서관 사서가 건넸던 따뜻한 눈길과 인사 한마디 덕분에 도서관에 대한 즐거운 기억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 점이에요.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기고, 사서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도서관과 책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남기는 것. 이렇게 커져이 소중한 쌓인 기억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분명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믿어요.”



‘태어난 김에 도서관일주’ 탐험단 활동 다이어리

시애틀 공공도서관 Seattle Central Library & 렘 콜하스 Rem Koolhaas, OMA

글 김기덕(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2004년 문을 연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책과 사람, 그리고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유리외 강철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외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책 나선(Book Spiral)’, 그리고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내부 구조는 단순한 건축적 미학을 넘어, 정보와 지식이 흐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건축적 협업

1994년에 설계를 시작해 2004년에 완공된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Central Library)은 ‘모두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디자인되었다. 렘 콜하스(Rem Koolhaas, 1944~)가 이끄는 건축사무소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와 당시 프로젝트 건축가였던 조슈아 라무스(Joshua Ramus, 현 LMN 건축사무소장)는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를 풀어나갔다.

일반적인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지만,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컴퓨터 미디어센터, 회의실, 연구실, 카페, 아트 갤러리, 음악 연습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즉 책을 읽는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고 모임도 가지며, 연구하고 문화를 즐기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OMA는 전통적인 건축 설계 방식, 즉 단순한 평면도 작성이 아닌 인포그래픽 기반 디자인 방식을 활용했다.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하고 이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단순함에서 탄생한 혁신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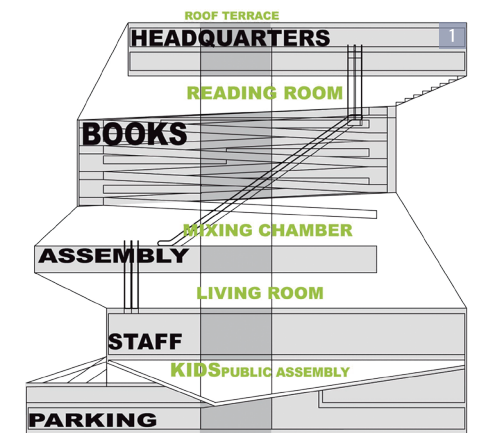
이를 시애틀이라는 도시 맥락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OMA는 특유의 다이어그램 기반 디자인 방식을 활용하였다. 도서관이 시애틀 도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설계한 것이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5개 ‘고정 공간(stability)’은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 그 사이로 4개의 ‘가변 공간(instability)’을 끼워 넣어 사람들 간의 상호 소통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연성을 갖추었다. 이 공간들은 텍스트로 먼저 그래픽화되었으며 이는 있는 그대로 건물의 형태로 구현됐다. 이 방식은 언뜻 보면 지나칠 정도로 단순한 다이어그램을 건축화한 것처럼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도서관의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인 공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용자가 원하는 책, DVD, 오디오 북 등의 자료를 미리 예약(Hold)해 두고, 준비되면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예약 대출 서비스

1. 시애틀 공공도서관 건축의 시초가 된 다이어그램(출처: OMA)
2. 리빙 룸(Living Room)으로 불리는 15m 높이의 개방된 공간

©2008 Mary Ann Sulliv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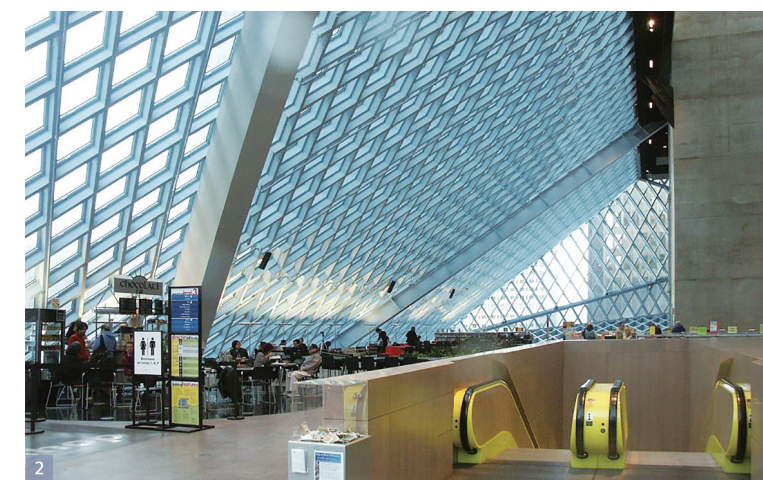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시애틀 다운타운의 언덕 지형을 반영하여 1층과 3층, 두 개의 입구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층에는 어린이 컬렉션과 세계 언어 및 영어 학습 컬렉션이 있고, 홀즈(Holds)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미리 대출 신청한 도서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대여할 수 있다. 2층은 사무실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리빙 룸(Living Room)’으로 불리는 15m 높이의 개방된 공간의 3층은 메인 로비 역할을 한다. DVD, 그림책, 대형 서적, 신간 도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소규모 기프트 숍 및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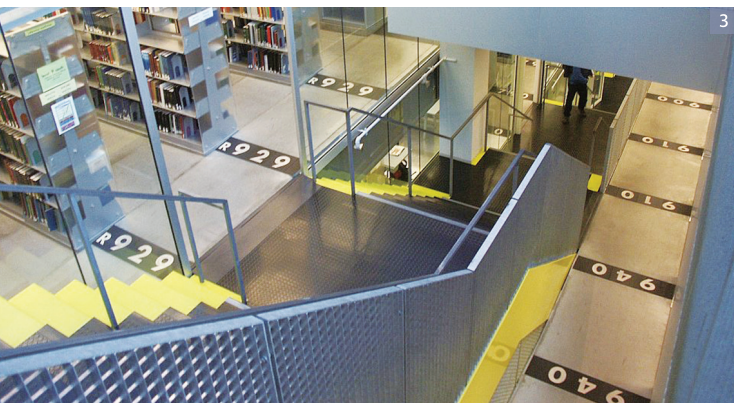
렘 콜하스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유기적 공간의 흐름

강렬한 색상을 자주 사용하는 렘 콜하스는 형광색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상부 서가로의 이동을 유도한다. 4층에는 빨간색 회의실



이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5층은 ‘혼합실(Mixing Chamber)’로 불리며 컴퓨터,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번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6층에서 시작되는 ‘책 나선(Book Sprial)’은 9층까지 이어진다. 도서관은 「듀이십진분류법」을 활용해 도서들을 000부터 999까지 연속적인 분류번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이 번호가 커다란 그래픽 요소로 부착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공간은 하나의 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동선이 끊김 없이 유기적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렘 콜하스가 즐겨 사용하는 건축적 장치로, 전통적인 도서관처럼 수직의 층별로 단절되는 구조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열람실을 둘러보도록 유도한다.

6층에서는 잡지,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다. 7층은 경제, 경영, 요리, 과학, 기술 등의 도서와 DVD 열람이 가능하고, 취업지원센터가 있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8층에서는 건축, 예술, 음악, 운동 관련 도서를 볼 수 있고 전시 공간과 악기 연습실이 자리하여 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층의 역사, 전기, 지도, 여행 도서를 끝으로 10층에 다다르면 이 도서관에서 가장 조용한 오픈 스페이스가 있다. 이곳에서는 도시와 하늘 전망을 감상하거나 로비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트리움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시애틀 룸’이라 불리는 특별 컬렉션에선 시애틀과 관련한 역사, 사진, 지도 및 희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3. 바닥에 표기된 도서 청구 기호들 ©2008 Mary Ann Sullivan

건물의 외관은 마치 내부 프로그램들이 어긋나게 배치된 듯한 구조를 감싸는 마름모꼴의 격자망 형태를 띤다. 이 구조는 좌우로 밀려난 각 프로그램의 층들을 구조적으로 지탱해 주는 동시에, 1만여 개에 달하는 유리 패널과 철판 프레임을 활용해 자연채광을 극대화한다. 약 50m 높이의 11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3만 4,000㎡이다.

사회적 통찰로 건축을 재해석한 렘 콜하스의 여정

한국의 리움미술관(뮤지엄2)과 서울대학교 미술관을 설계하기도 한 렘 콜하스는 1944년 로테르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소설가였다. 신문기자와 시나리오작가로 활동하며 사회적인 통찰력을 쌓은 그는 이후 영국 AA(Architectural Association)와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건축을 공부하며 이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발현체로 바라보았다. 뉴욕을 광기 어린 건축물들의 무대로 분석한 서적 《Delirious New York》과 전통적인 건축 서적의 형식을 탈피하여 건축 이론, 에세이, 여행기, 일기, 스케치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S, M, L, XL》의 출판을 통해 건축계에 강렬한 충격을 주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1974년, 그는 자신의 이론을 도시 맥락에 적용하는 실험적 건축사무소 OMA를 설립하였고, 2000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건축 철학은 단순히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능적 흐름을 건축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콜하스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서고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인 공간, 유기적인 동선,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고려한 혁신적인 설계로 완성했다. ‘책 나선’을 통해 도서 분류 체계를 물리적 공간과 연결시키고, 다이어그램 기반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현대 도시의 지식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렘 콜하스의 이러한 건축은 물리적 형태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그의 이러한 실험이 가장 극적으로 실현된 사례 중 하나다. ❶

김기덕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김기덕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건축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와 피터 아이젠만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함께 디자인하였으며, UCLA에서 프랭크 게리와 건축대학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서재를 걷다

36

문헌의 가치

신규 보물로 지정된 불경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40

책으로 만나는 명사

당연한 죽음, 당연하지 않은 삶

이호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한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44

작가를 사랑한 도시

상처받은 영혼과 삶의 예술화

이효석 & 강원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48

책 그리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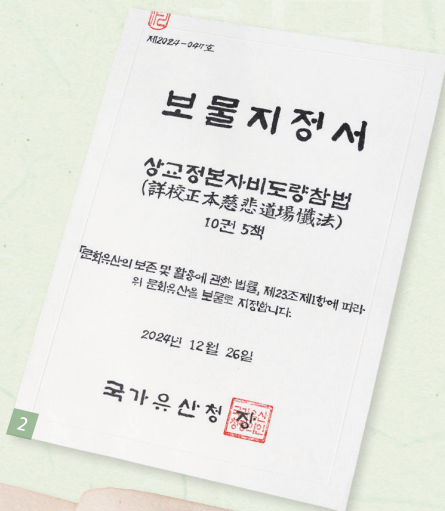
서점 주인으로 한 달 살기 브이로그

《서점 일기: 세상 끝 서점을 비추는 365가지 그림자》

신규 보물로 지정된 불경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글 안혜경(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30만여 점의 소장 고문헌 중에서 학술적, 자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2021년 회귀 고문헌 11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절차는 먼저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서관의 경우 서초구)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서초구의 내부 심의와 서울시의 지정 검토 조사 및 심의를 거쳐 2023년 최종 6종이 국가유산청에 보물 지정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국가유산청의 실물 조사와 두 차례에 걸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이 2024년 12월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지자체에 신청한 지 3년 반 만에 맺은 결실이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동의보감》 등 국보 2종, 《석보상절》 등 보물 11종이 됐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보물로 지정된 불경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2. 보물지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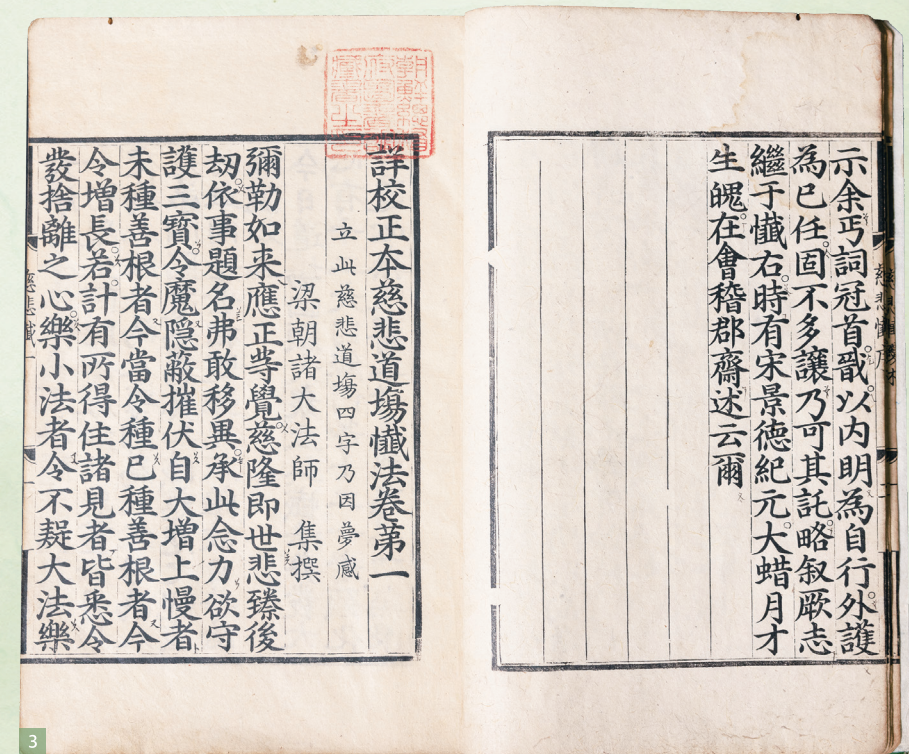
《자비도량참법》이란

중국 양나라 무제(武帝) 당시인 5세기 말 중국에서 처음 편찬한 참법서*로, 여러 경전에 들어 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 등을 일정한 체계로 엮은 책이다. 본문이 시작되는 권수제(卷首題) 다음 행의 주석에 “자비도량이라는 네 자를 붙이게 된 것은 꿈속의 감응(夢感)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어 이 책의 편찬 경위를 알 수 있다. 즉, 양나라 무제가 참법을 짓고 마무리할 즈음에 그의 아들이 법문을 설법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자비의 화신인 미륵 부처께서 지시해 준 것이라 ‘자비도량’이라 이름 붙인 것이라고 전한다. 바로 다음 행에 보이는 편찬자로는 ‘양조제대법사 집찬(梁朝諸大法師 集撰)’이라 하여, 양나라 시대의 여러 큰 법사들이 집단으로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책 제목에서 ‘상교정본(詳校正本)’은 상세한 교정(詳校)을 거친 정본(正本)이라는 의미로, 《자비도량참법》의 오류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교감하고 교정하여 송나라 광균(廣鈞)이 10권으로 편집한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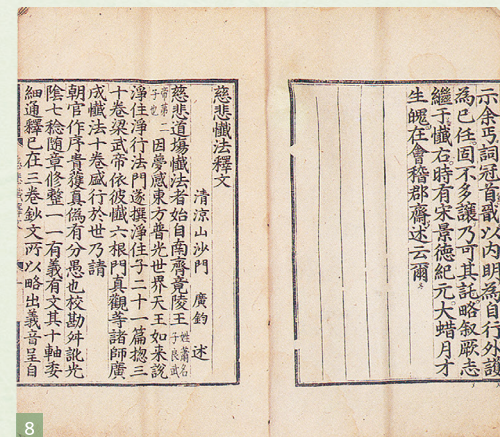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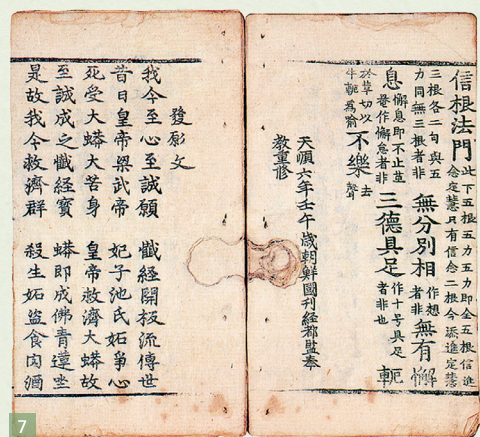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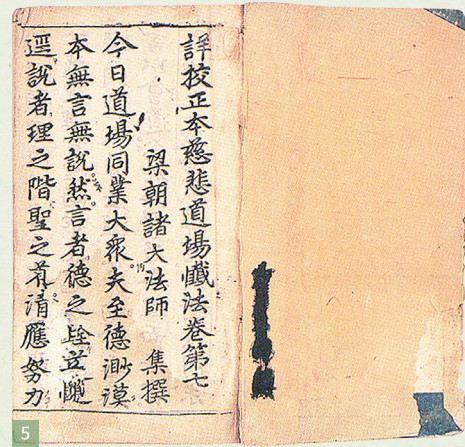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중국에서 전래되어 고려 충숙왕 3년(1316) 이후부터 조선 성종 19년(1488)까지 다양한 형태의 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고 전파되었다.



* 참(懺)은 다른 이에게 용서를 비는 것. 참법(懺法)은 참회의 의례로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법
** 立此慈悲道場四字乃因夢感
3. 권수제면

현재 전해지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판본은 고려시대 초간본과 중간본(重刊本), 고려 초간본을 조선 세종조에 번각한 목판본, 번각본을 세조조에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목판본, 그리고 성종조에 새롭게 간행한 왕실 판본 등 다양하다. 이 판본들은 한 줄에 13자의 절

첩(折帖) 형태로 장정한 책, 절첩본을 저본으로 간행하여 선장(線裝)으로 장정한 책, 한 줄에 15자로 새롭게 판각, 간행한 책 등으로도 구별할 수 있으며, 이미 보물로 지정된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 사진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특징과 가치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위에서 다룬 판본 중 가장 후대에 해당하는 9행 15자 왕실 판본으로,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다. 권말에 나오는 조선의 문신인 김수온(金守溫)이 쓴 발문(跋文)에는, 성종 5년(1474)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가 돌아가신 세종과 소헌왕후, 세조와 아들 의경왕(후일 덕종), 예종, 성종 비 공혜왕후 등의 극락천도를 기원하며 이 책을 새롭게 새겼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왕실이 발원하여 임금의 각별한 지원으로 내수사(內需司)에서 제작을 주관한 왕실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년 후인 성종 12년(1481)에 간행하면서 수록한 발문에서, 예종의 계비인 인혜왕대비가 양조모 김씨의 영가천도(靈駕薦度)를 위해 7부를 찍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제작 및 간행 경위가 명확하다. 당대 명필가인 성임(成任)이 쓴 해서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그린 변상도(變相圖)와 당대 일류급의 각수가 새긴 필력, 진하고 선명하게 찍어낸 인쇄 상태 등 최고 수준의 판각으로 조선시대 목판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판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481년 간행한 7부 중 1부가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전래된 것인데, <도서판자료원부>에 의하면 도서관(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1930년 3월에 김 모 씨라는 서적 중개상으로부터 50원(圓)에 구입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다른 고서들의 구입가가 책당 1원에서 5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구입 당시에도 이 자료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한 판본의 또 다른 2부는 권1-5(한솔제지 소장)와 권6-10(원각사 소장)의 결질 상태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자료는 현재까지 공개된 최초의 10권 5책 완결본에 인쇄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한 선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참고로, 이 자료에 대한 최초의 해제자는 국립도서관의 초대 부관장인 박봉석이다. 박봉석은 1931년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취직하여 해방되기까지 약 15년간 주로 분류와 편목 업무에 종사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1941년부터는 창씨개명(일본식 성명 강요)으로 인하여 와야마 히로시게(和田博重)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기관지인 《문헌보국》에 다수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1943년 4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료에 대한 상세 해제를 일본어로 기고한 바 있다. 불자이기도 한 그는 불경과 서지학에 상당히 정통하여 자료의 간행 목적, 권수의 변상(과거 비바시불부터 당래 미륵존불까지)부터 시작하여 상세 서지 사항을 해설하였다.

장항***은 진한 녹색의 견포(絹布)로 권말 표제면에 '을사년 2월 15일 개장(乙巳仲春花朝日改裝)'이라 묵서되어 있어 후대에 개장한 것으로 보았고, 인쇄는 선명하고 조선 목판으로는 드물게 보인다고 박봉석은 평하였다. 표지와 면지의 상태, 20세기 전후에 활동한 재가불자의 소장인(東耘, 朴銑默印)으로 보아 1905년 개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 대한 가치를 일찌감치 도서관계의 대선배가 인식하여 알렸고, 또 80여 년이 지나 도서관 후배들이 노력하여 보물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서 더욱 남다르게 느껴지고 뿌듯한 마음이다.

이번 보물 지정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술 가치가 높은 자료의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⑥

*** 장항(裝潢)은 책 표지를 장식·염색하여 꾸미거나 튼튼하게 장정하는 것
4. 1316년 초간본(수덕사 소장)
5. 1352년 중간본(우종미술관 소장)
6. 1352년 중간본(절첩)(달마사 소장)
7. 1462년 간경도감본(보림사 소장)
8. 1474년 왕실본(한솔제지 소장)
9. 변상도



당연한 죽음, 당연하지 않은 삶

이호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한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글 하혁진(문학평론가)

‘당연한 죽음’을 통해 ‘당연하지 않은 삶’을 배우는 사람.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세상을 떠난 이가 세상에 남은 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죽음의 의미를 번역하고 기록하는 사람. 30여 년간 약 4,000여 건의 시신 부검을 해온 사람. 이 책은 법의학자 이호가 써 내려간 삶의 기록이다. 그렇다.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덮는 순간까지 독자가 만나게 되는 것은 솔한 죽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 삶의 기록이다. 이 책이 제사(題辭)로 인용하고 있는 몽테뉴의 《수상록》 속 문장¹처럼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치기 때문이다.



¹ “내가 책의 저자라면,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을 기록하고 또 논평할 것이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삼인칭’의 죽음

우리 사회는 죽음에 관한 사유가 빈곤한 사회다. 왜일까.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는 그의 책 《죽음: 이토록 가깝고 이토록 먼》에서 죽음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차원의 신비”인 동시에 누구나 경험해 본 적 있는 “익숙한 사건”(15쪽)이다. 죽음은 “경험적”이면서도 “초경험적”이고, “이례”적이면서도 “상례”(17쪽)적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거리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되는 사건인데, “죽음은 타인에게만 닥쳐오는 어떤 것”(20쪽)이라고 믿는 사람과 “어느 날 조종(弔鐘, 죽음을 애도하는 종)을 들으면서 지금 이웃을 위해 울리는 저 종소리가 언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리리라는 것”(37쪽)을 깨닫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인식한다. 이때 전자의 경우, 즉 죽음을 “추상적인 익명의 죽음”(42쪽)으로 인식하는 삼인칭의 태도는 자신이 죽음과 관련되기는커녕 마치 죽음 밖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판단하게 한다. 그러한 태도로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실제적이지도, 임박해 있지도, 몸소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실감을 회복하는 일, 그리하여 “죽음의 비극성을 아프게 속으로 겪어내”(31쪽)는 일이다. 예컨대 매일매일 죽음과 만나는 법의학자의 기록을 따라가 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실감을 회복하는 일,
그리하여 죽음의 비극성을
아프게 속으로 겪어내는 일이다.



삶과 죽음의 (무)경계

저자는 자신의 법의학자 인생이 ‘미친놈’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됐다고 회상한다. 의대 본과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교수님이 왜 굳이 법의학을 하려고 하는지 물었을 때 “모든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통해 놓친 것이 무엇일까를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7쪽)라고 답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6쪽)라며 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시간이 흘러서야 그 말의 의미가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8쪽)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삶이 아닌 죽음을 과제로 선택한 젊은 법의학자가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주검’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막연한 관념으로만 인식되는 죽음을, 그는 매일매일 분명한 실존으로서 마주한 것이다. 그는 “사연 없는 시신은 없다”(22쪽)는 믿음을 기반으로 세상을 떠난 이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략) 그의 애달픈 사연을 굵이굵이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가 자신의 몸을 통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21쪽)이라고 말하는 법의학자는 주검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시나브로 나아간다.

저자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문장을 인용하며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 살아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자주 잊고 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죽어가는 중이며,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는 없다. 이렇듯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당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46쪽). 그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만 절대적인 상실에 대한 불안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하건대 저자는 모든 삶의 끝은 죽음이라고, 아니, 죽음까지가 삶이라고 말한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외면해선 안 되고, 일상 속 수많은 죽음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2만 8,000명’의 죽음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사망자 수는 대략 20여만 명인데, 그중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유가 바로 ‘사인 불명’이다. 저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육하원칙’을 만드는 일이 떠나간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막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살아 있는 자들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법의학자는 죽음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배우는 사람이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기에 삶 역시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몸속 혈관을 전부 연결하면 무려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길이가 된다. 그 길고 긴 혈관에 피가 도는 시간은 단 46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기적이다”(54쪽)라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문장도 하루하루 죽음과 만나는 저자의 삶과 함께 놓고 보면 남다른 울림을 갖는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에게 삶의 기적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법의학자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양심, 죽음이라는 공통의 조건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시민으로서의 애정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대형 참사 현장 수습에도 발 벗고 나선다. 그는 “죽음을 시작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이 있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점처럼 놓여 있”는데 “그 이어진 점 중 하나만 달라져도 선의 모양이 바”(102쪽)편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덧붙인다. 그렇게 소명의식과 시민의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삶의 의미가 빛난다. 이 믿음직한 법의학자는 우리 사회 곳곳의 죽음 곁에 조용히, 또 오래 머무른다.

우리 몸속 혈관을
전부 연결하면
무려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길이가 된다.
그 길고 긴 혈관에
피가 도는 시간은
단 46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기적이다.



‘일인칭’의 죽음

저자는 말한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다. 즉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지게 된다”(141쪽).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188쪽). 주검을 ‘인체’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따스한 법의학자의 문장들을 따라 읽다 보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기억과 애도의 의미에 대해 천천히 곱씹게 된다. 특히 범죄나 참사로 죽음을 맞닥뜨린 유가족들이 상실의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애도 의학’을 시스템화하고 싶다는 저자의 진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 많아질수록 삶의 의미 역시 깊어질 것이므로, 이 책을 통해 ‘삼인칭’의 죽음을 ‘일인칭’의 죽음으로 힘껏 끌어안아 보기를 바란다. ❶

하혁진

문학평론가. 제20회 대산대학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고, 계간 《창작과비평》 2022년 봄호를 통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평론으로 <감각의 질서와 그녀들의 환상통: 김행숙의 『사춘기』 다시 읽기> 등이 있다.

상처받은 영혼과 삶의 예술화

이효석 & 강원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글 김진기(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진 이효석문학관

이효석문학관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학길 73-25(창동리)

개관일 2002년 9월 7일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이다. 아울러 작가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다. 그 작품 하나가 오늘날의 '이효석문학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넓게 '효석달빛언덕'으로 확장시켰다. 이 안에다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였고 근대문학체험관, 푸른집(평양의 생가), 나귀전망대, 꿈꾸는 달(카페) 등을 조성하여 하나의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효석 문학의 결정체, <메밀꽃 필 무렵>

매년 9월이면 이효석문화마을 일대는 하나의 큰 장터로 변한다. 평창효석문화제라는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축제 시기가 되면 마을에는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들리고 허생원과 조선탈, 동이 같은 장돌뱅이들이 대낮부터 벌겅게 한잔하며 왁자지껄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속을 지나가다 보면 묘한 향수에 젖어 든다. 이에 걸맞게 마을 주민들은 장터 주변을 모두 메밀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때쯤 가면 그야말로 사방이 온통 작고 하얀 꽃으로 뒤덮인 것을 볼 수 있다. 밤에 가면 달빛에 흐드러진 꽃들이 정말로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하얗다. 작가는 이를 “산허리는 원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었다”고 표현했다.

이효석문학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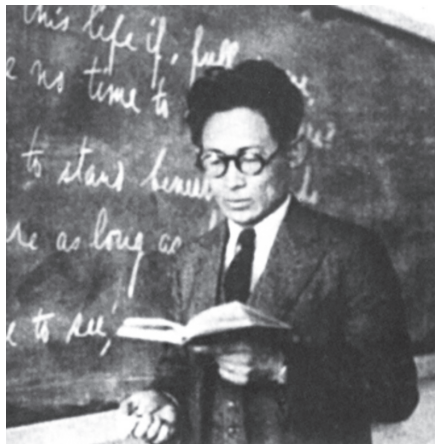
이 짙막한 문장에서 우리는 작가의 문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 일단 표현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특성이 잠깐이나마 구인회(九人會)에 가담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설의 공간이 도회지가 아니라 시골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의 배경은 봉평, 제천, 대화 등 강원도와 충북에 걸친 5일장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향토성에는 그곳이 작가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작품의 분위기가 매우 서정적이라는 것이다. 소설은 본래 서사가 본령인데, 이 소설은 시적인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어 사건다운 사건도 없고 시적인 정서가 전면에서 펼쳐지고 있다. 네 번째는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것이다. 동이와 허생원의 인간사도 모두 새하얀 메밀꽃과 그것들을 비추는 달빛에 덮여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유심히 보면 상당히 에로틱한 부분이 많다. 흔히 이효석 소설의 특징으로 인간 본연의 원초적 에너지로서의 에로티시즘을 드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런 특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단순히 메밀꽃의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멋진 표현력, 향토성, 서정성, 자연 귀의, 에로티시즘 등 이효석 후기 소설의 주요 특징이 총망라되어 있는 뛰어난 수작이라 할 것이다.

이효석 문학의 분기점과 카페 '동'

문학관 건물에 들어서면 아담한 뜰이 보이는데 그 뜰을 둘러싸고 있는 전시관 원편으로 '동'이라는 카페가 눈에 들어온다. 이 '동'은 1932년 그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아내의 집이 있는 함경도 경성으로 갔을 때 거기서 10리 남짓 거리에 있던 나남의 조그마한 카페를 본뜬 것이다. 친구도 지인도 없었던 곳에서 그가 만난 유일한 문화적 오아시스였다고나 할까. 걸어서, 버스로, 혹은 기차로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갈 정도로 그는 '동'의 그 커피 맛에 흠뻑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커피 맛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오는 단골들과 주인과 함께하는, 눈과 난로와 크리스마스트리와 레코드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모두 다 그윽한 것이었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아주 먼 곳을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향기라면서 그는 “나는 늘 이 향기를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하”였고 “‘동’은 그때의 나에게 이 향기를 준 곳이었다”고 하였다. 이 향기란 무엇인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멀고도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서울에서의 삶은 이런 아름다움을忆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절대 빈곤의 생활 전선에서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봉평의 수재로서, 열네 살이던 1920년 무시험으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 전신)에 입학하였고 1925년 우수한 성적으로 경성제국대학 예과(문과 A)에 합격하였다. 1927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법문학부 영길리문학과(영문학과)로 전과하여 1930년 졸업하기까지 이효석은 그야말로 당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보기 드물게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세보다는 문학에 심취하여 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체호프와 푸시킨, 고리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등의 러시아문학과 하이네, 괴테, 뢰프텐의 시들을 좋아했고 셸리의 시에도 흠뻑 빠졌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와 희곡작가 싱을 좋아하여 당시 영시 강독 프라이스 선생으로부터 그의 탁월한 문학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런 세계문학에의

1 1933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문학단체, 이종명(李鍾鳴)·김유영(金幽影)의 발기로 이효석(李孝石)·이무영(李無影)·유치진(柳致眞)·이태준(李泰俊)·조용만(趙容萬)·김기림(金起林)·정지용(鄭芝溶) 등 9인이 결성하였다. 그러나 발족한 지 얼마 안 되어 발기인인 이종명·김유영과 이효석이 탈퇴하고 그 대신 박태원(朴泰遠)·이상(李箱)·박팔양(朴八陽)이 가입하였으며, 그 뒤 또 유치진·조용만 대신에 김유정(金裕貞)·김환태(金煥泰)가 보충되어 언제나 인원수는 9명이었다.



이효석(1939년 평양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수 시절)



이효석문학관 카페 '동'

경도는 메이지유신과 1930년대 후반의 신체제론 사이에 만연했던 사회화론적 오리엔탈리즘²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구 문학을 전범으로 하고 그 속에 우리의 문학을 위치 지우려 했던 이러한 경향 속에는 물론 당시 계급문학을 주창했던 카프(KAPF, Korean Artists Proletarian Federation,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³도 포함되어 있다.

이효석이 이러한 카프적 운동에 빨려 들어간 것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했던 면도 있다. 1923년 무렵부터 문학에도 계급적 경향을 보이는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백조》의 김기진, 박영희 등이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만든 ‘파스쿨라’, 그리고 마르크스 보이들의 문학단체인 ‘염군사’가 그것이다. 이 두 단체가 결합하여 1925년 카프가 만들어졌고 그 후 10년간은 카프 문단⁴이라고 할 정도의 대세가 만들어졌으니,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이효석의 문학적 행보가 〈도시와 유령〉, 〈노령근해〉 등의 동반자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시대는 만주사변(1931년)을 전후로 해서 급격히 얼어붙게 되었으니, 카프 제1차, 2차 검거가 그것이다. 급격하게 위축된 카프는 조직을 엄격히 조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동반자 작가 논쟁이었고, 카프 맹원 이갑기가 휘두른 비판의 칼날에 채만식과 이효석을 위시한 다수의 동반자 작가들이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이효석은 갑작스레 총독 부에 입사하지만 그로 하여금 어렵사리 얻은 직장을 열흘 만에 그만두게 할 정도로 수많은 동료들의 비난에 빠지게 하였다. 그래서 이효석은 서울을 떠나 카페 ‘동’이 있는 아내의 집 함경도 경성으로 가게 되었으니, 카페 ‘동’은 이효석 문학이 본격적으로 변화, 또는 개화하는 중요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리얼리즘에서 예술지상주의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삶의 예술화와 ‘푸른집’

물론 이 예술지상주의의 맹아(萌芽)는 이미 문학에 심취했던 고등보통학교 시절부터 싹트고 있었다. 단지 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다. 바로 이런 성격이 그로 하여금 카프에 가담하지 못하게 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냉정한 리얼리스트가 되기에는 너무나 낭만적인 작가였던 것

²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아시아와 같은 비서구 지역을 “발전이 덜 된 미개한 사회”로 보는 시각을 사회화론의 틀에서 정당화하는 개념

³ 사회주의 문학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 노동자·농민 계급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단체인

⁴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계급문학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문단

이다. 〈노령근해〉나 〈기우〉 같은 초기 ‘동반자’ 작품에 이미 이국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기도 했고 〈오리온과 능금〉, 〈북국점경〉 같은 작품에는 혁명과 여성이 양립되어 있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성’ 이후의 작품에서 동반자적 경향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들〉에서 나도 문수도 여전히 시국에 연루돼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효석 문학의 기본 성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단지 카페 ‘동’을 기점으로 하여 동반자적 경향과 예술지상주의 사이의 무게추가 조금씩 혹은 급격하게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방민호 교수는 이런 이효석 문학의 특성을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지향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카페 ‘동’ 이후의 문학은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취향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개인의 취향에는 원초적 에로티시즘과 국적 초월의 이상주의, 음악·미술·영화·여행·커피·정원 가꾸기 등 당시로 보면 아주 호화스럽고 동시에 서구적인 취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뿐인 그 취향은 그러나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는데, 그의 소설에 나타난 원초적 에로티시즘도 그래서 그렇게 경박하지가 않다. 그 절제의 거리를 상실했을 때 〈화분〉과 같은 애욕의 세계가 그려지는 것이다. 이처럼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는 작가의 댄디적 경향은 〈벽공무한〉의 인물들 모두에게서 한결같이 나타난다. 그 인물들을 움직이는 ‘녹성음악원’은 삶을 예술로 바꾸려는 의지의 결정체라 할 것인데 어떻게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이라는 시기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삶 속에서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이 좋은 이유는 산의 “그 넓은 세상은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삶과 예술은 번잡한 현실을 모두 괄호 속에 넣고 ‘푸른집’ 주변을 하염없이 돌고 있는가 보다. ㉠

김진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근현대 소설연구》, 《한국문학과 자유주의》, 《한국문학의 이념적 역동성 연구》, 《현대소설을 찾아서》 등이 있고, 공저로 《문학관 기행》, 《한국현대작가론》, 《현대소설의 이해》가 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이 좋은 이유는

산의 “그 넓은 세상은 사람을 배반

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삶과 예술은

번잡한 현실을 모두 괄호 속에 넣고

‘푸른집’ 주변을 하염없이

돌고 있는가 보다.



서점 주인으로 한 달 살기 브이로그

《서점 일기: 세상 끝 서점을 비추는 365가지 그림자》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한 달 살기 브이로그를 종종 보곤 한다.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를 재빠르게 오가며 숙박 곁할 기식으로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택한 도시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이 유명한 명소들을 시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라면, 오랜 시간을 들여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그 도시의 공기 냄새를 맡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체온을 느끼고 길거리 음식의 맛을 모두 느끼는 것이 총체적인 경험에 더 가까울 것 같다. 따뜻한 남쪽 나라나 유럽의 소도시에서 느닷없이 작은 한식당을 여는 TV 프로그램도 이 총체적인 경험을 살아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요리에는 자신이 없으니, 내가 좋아하는 책을 주제로 다른 일상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서점 주인으로 살아보기.



서점 주인의 낭만과 실상

《서점 일기》는 바로 그렇게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위그타운에서 중고 서점을 운영하는 ‘손 비탈’의 일기를 모아두었다. 어쩐지 따뜻한 난롯가에서 책장을 넘기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정작 첫 페이지에서부터 저자는 서점 주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소설가 ‘조지 오웰’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서점을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냥했던 자신의 성격이 변해버렸다고 고백한다. 아마 예상 가능한 변화는 서점의 경영난이었겠지만, 정작 《서점 일기》에서 주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책값을 깎으려고 드는 손님들,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려고 드는 손님들이다. MBTI 검사가 유행하는 요즘이라면 그는 아마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 특유의 ‘I’ 성향이라고 먼저 밝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책을 보고 택한 직업인데도 예상보다 손님들과의 대화가 많아서 적성에 맞지 않은 것일지도. 그러나 손님들에 대한 짜증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그는 반대로 이렇게 확신한다. “그럼 이런 일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으냐고? 아니올시다.” 그래서 싫지만 반드시 지키고 싶은 일상을 수집해 나간다. 그렇게 모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애쓰는 끈질긴 노력과 그 보람의 연속 이상의 것을 만날 수 있다.

냉소적이지만 따뜻한 영국인의 일상

이 책은 서점에서 일하는 모습과 서점 옆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서민적인 생활을 다룬 일기 모음집이다. 서점에서 책을 팔고, 종종 고객의 집이나 거래처에서 책을 사는 반복적인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 반복 안에는 책 자체에 대한 열정과 책을 둘러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묻어나온다. 그러니 이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세심하고 예리한 관찰로 확장되어 간다. 그렇게 일상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따라가며 일기도 사소한 일상을 놓치지 않는 형식을 지키고 있다. 매일 그가 판매한 책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하루 매출과 손님의 수를 기록하면서 마감한다. 그사이의 일과를 채우는 것은 책이 아닌 책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는 책이 필요 없어져 팔려온 사람의 사연과 어떤 책이 필요해진

사람의 이유를 모아보면, 책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서점 일기》는 겉으로는 더없이 냉소적인 문장이지만, 그 냉소야말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책의 경제와 문화

서점 주인에겐 손님을 기다리는 일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알기 어려운 중고 서적 거래상의 직업 세계에 대한 관찰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거대 온라인 유통 기업 아마존에 밀리면서도, 동시에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현시대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때 영국에는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중소형 서점이 대형 서점에 대항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는 또한 출판업계가 경제적 안정을 찾고 시장성이 적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책을 출판할 여유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 안전망이 사라진 영국의 상황에 대한 저자의 한탄은 한국의 중소 상인이나 식당의 현황을 떠올리게 하기에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의 중요한 통찰은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이 반드시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처럼 경제적 효용성과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에서는 《서점 일기》라는 책을 통해 작은 서점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❶



* 도서정가제(Net Book Agreement, NBA)

: 출판사와 서점 간의 협약으로,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책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 영국의 도서정가제는 1997년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영국의 도서 시장은 자유 경쟁 체제로 변화했다. 한국은 도서정가제를 유지 중이다.

김건형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소식을 전하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시가 있는 삶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1

국민참여기자단 '도토리 6기' 운영



2025년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도토리 6기' 모집 안내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참여기자단 '도토리기자단 6기'를 운영한다. 이번 기자단은 도서관과 독서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 사진 촬영, 영상 제작, 웹툰 제작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서관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토리기자단 6기의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기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사와 도서관 관련 현장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유통되어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활동 분야별로 기자는 월 1회 A4 2장 이상(13pt, 줄 간격 160, 이미지 제외)의 기사를 작성하며, 영상기자는 1~3분 이내(인트로, 아웃트로 포함)의 영상을 제작한다. 웹툰기자는 8~10컷 내외(표지 포함, 인스타그램 발행 기준)의 웹툰을 제작하며, 모든 기자단원은 월 1회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다만, 활동

내용은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기자단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자단 명함과 기자증이 제작되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원고료가 지급된다. 또한 기자단의 프로필사진 촬영이 지원되며, 분기별 우수 기자 및 연말 최우수 기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견학, 전시, 강연 등 일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도 주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토리기자단 6기를 통해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도토리는 '도서관을 토대로 세상을 리(이)롭게 하자'의 줄임말입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31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자단 및 독서 동아리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2025년 청소년 기자단 '부커부커' 모집 안내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기자단 '부커부커'와 독서 동아리 '생각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커부커'와 '생각나눔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대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1년간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또한 때때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함께 읽기를 희망하는 책의 서평 쓰기 활동을 하는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기자단 '부커부커'는 때때의 시각에서 사회 이슈를 탐구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직 기자의 지도로 기사 작성법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며, 읽고 쓰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청소년 독서 동아리 '생각나눔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독서토론 모임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추천한 '때때추천도서'와 사서가 선정한 '주제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한다. 올해는 김유진 작가와

함께 《과학자가 되는 시간: 자연 관찰과 진로 발견》, 《속눈썹, 혹은 잃어버린 잠을 찾는 방법: 도서관 친구들 이야기》 등 10권의 도서를 읽으며 공감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깊이 있는 독서와 글쓰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독서 동아리에서 다양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도서관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다"거나 "기자단 활동을 통해 기사 작성법과 인터뷰 실습을 배우면서 글쓰기가 한층 편해졌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느낌이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남겼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54

3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 81만여 책(건)을 수집하고, 희귀 근대문헌과 고문헌 500책을 구입하는 등 국가지식자원의 수집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K-문화 확산과 한국학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웹툰 등 연재형 웹 콘텐츠에 대해 ISBN을 대체할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발급을 시작하며, 해외 국립도서관과 보존 처리 기술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도 강화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자료를 AI-OCR 기술로 디지털화해 텍스트 DB로 구축하고,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AI-OCR 플랫폼을 운영해 AI 학습용 데이터로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모달***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여 신기술 환경에서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다국어 동화 콘텐츠 제작을 기존 12편에서 105편으로 늘리고, 한국의 우수 그림책을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시설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 제공 및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독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개별 디지털 콘텐츠에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해 주는 체계

** 클라우드소싱: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대중의 참여와 기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멀티모달: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함께 처리하는 것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95

4

국립중앙도서관 공공예식장(국제회의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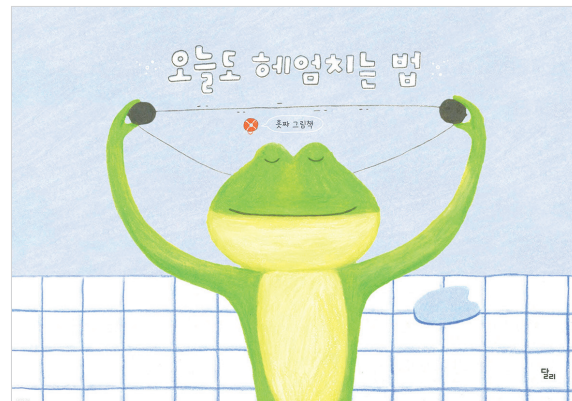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술회의,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회의장을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약 200석 규모이며, 발표 및 회의 진행에 최적화된 음향·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활한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신부 대기실과 신부 대기석도 마련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약 30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일반인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 대관 신청은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서 할 수 있다. 현재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4월 12일(토), 5월 10일(토)은 관내 행사로 신청이 불가하며, 4월에서 6월 이후의 날짜 또한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는다. 대관료 및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운영지원과 02-590-0519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리고 그림책' 2기 작가 선정



2025년 '그리고 그림책' 2기에 선정된 작가 김수민의 《오늘도 헤엄치는 법》 책 표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월 11일(화) '그리고 그림책' 2기 작가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그림책'은 신진 그림책 작가 지원을 통해 한국 그림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서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1기 작가 20명을 배출했다.

1기 작가가 참여한 2024년 '그리고 그림책' 더미북데이 행사에는 47개 출판사에서 110여 명의 편집자가 참여했으며, 6명의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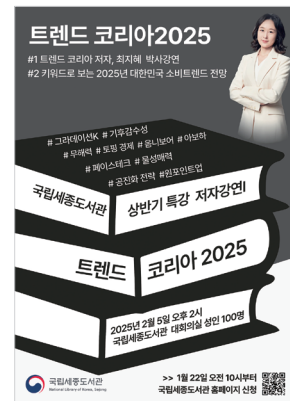
2024년 12월 18일(수)부터 2025년 1월 17일(금)까지 진행된 이번 선정 공모에는 총 60명의 작가가 지원하여 학계, 출판계, 평론가 등 그림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2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그림책 창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어린이·청소년 장서 81만 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실, 세미나 룸 및 전문 장비를 갖춘 디지털 룸 등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제공된다. 아울러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출판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더미북 제작을 지원한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7

6

국립세종도서관 《트렌드 코리아 2025》저자 특강 진행



저자 강연 포스터

국립세종도서관은 2025년 특강 시리즈의 일환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5》저자 특강을 2월 5일(수) 진행했다. 특강 시리즈는 인기 도서 저자 강연과 부모 강좌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그 첫 번째 강연자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최지혜 박사가 초청됐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 2025년 대한민국의 소비트렌드를 전망한다. 매년 발간되는 시리즈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여 한 해의 주요 흐름을 예측한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저자 강연 및 특강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5(9205)

국내 도서관 소식

1

책 읽는 도시 완주군, 작은도서관 50곳 집중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주민들의 독서 심터이자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완주군에는 공립 9개소, 사립 13개소 등 총 2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올해 50개소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작은도서관의 자립적 운영을 위해 전문 사서 지원, 도서 구입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북 큐레이션 공유,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전용 '어린이 작은도서관',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 작은도서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을 조성하고, 독서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완주군 기차길작은도서관 모습(출처: 완주군청)

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늘봄도서관 개관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늘봄도서관이 2월 20일(목) 개관했다. 서구의 여섯 번째 구립도서관인 단봉늘봄도서관은 왕길동 695-1에 자리하며, 연면적 2,203㎡(총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가벽을 최소화한 개방형 구조로 조성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도 기능할 예정이다. 개관을 앞두고 드림파크 문화재단, 오류동 마을발전협의회, 왕길동 아파트발전위원회, 왕

길동 자연부락마을발전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총 8,700권의 도서를 기부하며 도서관 조성에 힘을 보탰다. 도서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서구는 2월 4일(화) 기부 단체 네 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단봉늘봄도서관 도서 기부 감사패 수여식 모습(출처: 인천 서구)

3

올해 경기도 공공도서관 11곳 개관

경기도는 올해 도내 9개 시·군에서 총 11개 공공도서관이 개관한다. 김포시 모담도서관(4월), 성남시 수내도서관(5월), 광주시 오포도서관(6월)과 신현도서관(7월), 하남시 감일도서관(8월), 이천시 서희도서관(9월), 파주시 파주문산거점도서관(9월), 수원시 경기도서관(10월), 화성시 동탄중앙도서관(10월), 안산시 와동도서관(11월), 화성시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12월) 등이다.

수원시 광교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도서관은 지하 4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만 7,775㎡ 규모로 건립된다. '기후·환경 도서관'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내 2,000여 개 도서관을 총괄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포시 모담산 인근에 자리한 모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682㎡ 규모로, 문화·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이 도서관은 소통과 교육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시 파주문산거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450㎡ 규모로 건립된다. 북부 농촌형 도서관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평화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개관하는 11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수는 총 334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서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출처: 경기도청)

4

경북교육청, 7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경북교육청은 경북권에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을 완공하거나 리모델링한다. 올해 개관 예정인 영양도서관(5월 준공)과 예천도서관(6월 준공)은 지역의 생태환경을 반영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중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영천도서관(부지면적 6,500㎡, 지하 1층~지상 3층) 우로지자연생태공원과 어우러지는 수변 도서관으로 건립된다. 64년이 지난 노후화된 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칠곡도서관은 지상 3층으로 공원형·열린 도서관 개념을 도입해 개방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칠곡도서관·포항도서관·구미도서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천도서관은 올해 부지 선정 및 기획 조사를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북 영양도서관 조감도(출처: 경북교육청)

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다복마을 도서관 개관

광주광역시 동구에 독서문화 소통 공간인 다복마을 도서관이 개관했다. 동구에 따르면, 다복마을 도서관은 지산2동 마을사랑채 2층에 자리하며,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다가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과 KB국민은행 후원을 통해 새롭게 조성됐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6월 KB국민은행 및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B국민은행으로부터 신간 도서 3,000권, 서가, 열람석, 책 속독기 등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조성 물품을 후원받았다. 연면적 150.99㎡ 규모의 단층 건물인 다복마을 도서관은 유아·아동자료실, 일반자료실, 프로그램실, 열람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7,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휴관일은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다.

6

경남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18일 개관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이 재건축을 마치고 2월 18일(화) 정식 개관했다. 1994년 개관한 장승포도서관은 2020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존 학습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친화적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431㎡ 규모로 새롭게 조성됐다. 특히 증강현실(AR) 그림책, 큰글자책 등을 구비해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꾸며졌다. 2월 2일(일)부터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밤 10시까지 야간 운영도 시행 중이다. 임시 개관 기간 동안 약 7,000명의 시민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개관식 초대장(출처: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국외 도서관 소식

1

ISSN 국제센터 2025~2029 행동계획 발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관리 기관인 'ISSN 국제센터(ISSN International Centre)'가 '2025~2029 행동계획(Action Plan 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연속간행물에 대한 글로벌 서지 데이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ISSN 네트워크 확장,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키퍼스 레지스트리(Keepers Registry)'를 통한 보존 촉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식별자, 향상된 분류 시스템 개발, 타깃 마케팅 전략 등 도서관과 출판사의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 목표도 이번 계획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과 국제 표준을 활용해 현대화된 식별자 시스템을 보장할 방침이다. ISSN 국제센터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0~2024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강력하고 연결된 혁신적인 ISSN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키퍼스 레지스트리(Keepers Registry): 디지털 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ISSN 국제센터, 2025~2029 행동계획
(출처 : ISSN 홈페이지)

2

핀란드국립도서관 2025~2028 디지털화 프로그램으로 정보 접근성 확대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 NLF)은 '디지털화 프로그램 2025~2028'을 발표했다. 유엔의 '2030 아젠다'를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희귀 자료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화 대상에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작곡가 잔 시벨

리우스(Jean Sibelius)의 작곡 필사본,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의 역사적 자료, 이나리 사미어와 스콜트 사미어 자료,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었던 칼 엔켈(Carl Enckell, 1876~1959)이 수집한 지도 컬렉션이 포함된다. 또한 신문·음성 기록물 디지털화 및 정기간행물 복원도 추진된다. 현재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에는 3,000만 페이지의 자료가 있으며, 매년 200만 페이지가 추가되고 있다. 일부 자료는 납본 도서관 및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3

호주국립도서관 2025~2033 전략 비전 발표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이 모든 호주인이 국가의 풍부한 유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2025~2033 호주국립도서관 전략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수집(Collect), 참여(Engage), 지원(Support) 세 가지 핵심 행동 분야로 구성됐다. 수집 분야에서는 호주 원주민 및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한 자료를 확보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분야에서는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전시·출판·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료 이용 기회를 늘리고자 했다. 마지막 지원 분야에서는 갤러리·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과 협력해 '트로브 전략(Trove Strategy)'을 실행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료 보호 및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전략적 비전은 호주 정부의 국가 문화 정책 '되살리다: 모든 이야기를 위한 공간, 모든 공간을 위한 이야기'(Revive: A Place for Every Story. A Story for Every Place)와 맥락을 같이하며, 호주의 예술·문화·유산 분야가 국가 미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Dear March, Come in!

Emily Dickinson

Dear March, come in!

How glad I am!

I looked for you before.

Put down your hat—

You must have walked—

How out of breath you are!

Dear March, how are you?

And the rest?

Did you leave Nature well?

Oh, March, come right upstairs with me,

I have so much to tell.